

정답 ·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교과서 갈래 특강

1 소설

본문 6쪽

개념 확인 **목표**

- 1 배경 2 절정 3 갈등 4 주인공

-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 중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한다.
-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단계는 '절정'이다. 참고로, 갈등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단계가 '발단', 갈등이 시작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전개', 갈등이 심화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가 '위기',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가 '결말'이다.
- 소설에서 인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얹혀 있는 상태나 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갈등'이라고 한다.
- <보기>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사용되었다.

2 시

본문 7쪽

개념 확인 **목표**

- 1 운율 2 시각적 3 ㉠ 4 ㉡

-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한다.
-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은 감각에 따라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으로 나누며,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도 있다.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감각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 시의 형식 요소 중 여러 시행이 모여 이루어진 덩어리로, 시상을 단위로 하여 구분되는 단위는 '연'이다.
- 인간의 내적 경험이나 감정, 사상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에서 '술'은 '지조, 절개'를 상징하고, '눈서리'는 '고난, 시련, 역경'을 상징한다.

3 수필

본문 8쪽

개념 확인 **목표**

- 1 × 2 ○ 3 × 4 ○ 5 ㉠ 6 ㉡ 깨달음
㉢ 진술

- 수필은 글쓴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쓴 글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꾸며 낸 이야기는 소설이다.
-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나 인생관, 가치관 등이 잘 드러난다.
- 수필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이다.
- 경수필은 일상적인 생활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이고, 중수필은 사회적인 문제나 철학적인 사색 등을 소재로 무겁게 쓴 수필이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논설문을 읽는 방법이다.
- 수필을 쓰기 위해 선정하는 글감은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었던 가치 있는 경험이어야 하고, 이를 글로 표현할 때는 거짓이나 과장 없이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4 주장을 담은 글

본문 9쪽

개념 확인 **목표**

- 1 ○ 2 × 3 ○ 4 (1) ㉢ (2) ㉣ 5 ㉤

- 주장을 담은 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글이다.
- 주장은 독자에게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근거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가진다.
- 주장을 담은 글은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조를 갖추고 있다.
- (1) 주장하는 글에서 제시된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는 특징은 '타당성'이다.
(2) 뜻이 명확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주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특징은 '명확성'이다.

- 5 주장을 담은 글을 읽을 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자신의 생각과 같은지 파악하며 읽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5 매체

본문 10쪽

개념 확인

1 ○ 2 × 3 ○ 4 대중매체 5 개인 인터넷 방송 6 ⑤

- 1 '매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뜻한다.
- 2 인터넷을 매개로 사용자끼리 소통하는 매체를 '상호 작용적 매체'라고 한다.
- 3 사회의 문화, 규범, 가치를 공유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기능은 문화 전파 및 전수 기능이다.
- 4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매체를 '대중매체'라고 하고,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내보내는 방송을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한다.
- 5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을 만든 사람과 시청자의 쌍방향 소통 경향이 강하다.
- 6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대중매체에는 신문·잡지(인쇄 매체), 영화·텔레비전(영상 매체) 따위가 해당한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대중매체에 속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매개로 소통하는 상호 작용적 매체이다.

6 토의

본문 11쪽

개념 확인

1 토의 2 근거 3 ○ 4 × 5 ③ 6 토의하기

- 1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 말하기를 '토의'라고 한다.
- 2 토의자는 타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최선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토의는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말하기이므로 토의 주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4 토의에서 토의 주제와 진행 순서를 안내하는 사람은 사회자이다.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를 소개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토의를 진행하며,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 5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 말하기이다. 따라서 토의 참여자가 다른 토의 참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6 토의의 과정은 '토의 주제 정하기 → 토의 내용 마련하기 → 토의하기 → 토의 정리하기'이다.

1 성장의 시간, 삶을 담은 글

(1) 성장을 담은 문학

개념 확인 **국문**

본문 14~15쪽

- 1 ③ 2 내면화 3 ㉠-㉡-㉢ 4 성장 소설 5 ×
6 ○ 7 ○ 8 ⑤

확인 문제

본문 18~43쪽

- 1 ⑤ 2 ② 3 ③ 4 ① 5 '교복도 안 벗고'라는
부분에서 주인공이 청소년인 학생임을 알 수 있어요. 6 ③
7 ① 8 ④ 9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 일
10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세면대 배수구의 마개
를 눌러서 구멍이 닫혔기 때문이다. 11 ④ 12 ③
13 ③ 14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 사람들 눈에 띄는
15 ② 16 세면대 배수구가 막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인 할머니께 여쭙보기 위해서이다. 17 ② 18 ③
19 ③ 20 ⑤ 21 ① 22 ③ 23 막힌 세면
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다. 24 ④
25 ⑤ 26 ④ 27 ③ 28 엄마 없이 지내고 있다
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 엄마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29 ④ 30 ① 31 ⑤ 32 화장
실 전등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 33 ④
34 ② 35 동생을 배려하는 언니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36 ⑤ 37 오기 38 ④ 39 ① 40 자전거 가게
41 '나'에게 멍키 스페너를 빌려 주었다. '나'와 한아의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 42 '나'가 세면대의 막힌 배
수관을 뚫었다. 43 ④ 44 ㉠ → ㉡ → ㉢ → ㉠ → ㉢
45 ③ 46 ② 47 요구르트 48 ② 49 철물점
에서 화장실 전구를 사 와 혼자 힘으로 갈아 끼우려고 한다.
50 ③ 51 ② 52 ⑤ 53 ③ 54 화장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환한 불빛 아래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55 ② 56 ③
57 멍키 스페너 58 ③

- 1 2에서 '나'는 동생 한아를 '혹'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돌봐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엄마도 집을 비우면서 언
니인 '나'에게 동생 한아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엄마가 집을 비우면서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현금 십만 원을 놓고 간 것
일 뿐, 평소 '나'의 용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 ② '나'는 엄마가 주신 돈으로 나중에 돈 생기면 사려고 했던 앤두 빗갈 입술
보호제를 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나'가 평소 화장을 좋아하거
나 화장품을 즐겨 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나'는 엄마가 집을 비우자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며
좋아한다. 따라서 평소에 엄마 없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는 평소에 사 먹지 못한 비싼 과자를 엄마가 주고 간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워한다. 이로 보아 비싼 과자를 먹는 일이 자주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 2 '팔자가 늘어지다'는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사는 것이 편안하다
는 뜻이므로, '나'가 엄마 없이 지내게 된 것에 대해 해방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밑반찬에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까탈스럽
지 않고 순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4 ㉠ '언니'는 주인공인 '나'를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한아'를
가리킨다.

- 5 [서술형] ㉠에서 '나'는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구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하였다. 즉 '나'는 교
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6 '나'는 실제로 자고 있던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있던 중으로
한아가 오줌 누는 소리, 대변 보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불을 안 켜면 뭐가 뭔지 하나도 보이지
를 않는다.'라고 하였다.
② 한아가 똥을 누기 위해 힘주는 소리가 났지만 '나'는 '문 닫고 싸라는 말을
차마 못 했다.'라고 하였다.
④ 세면대가 막혀 세면대에서 손을 씻을 수 없게 되자, '나'는 샤워기 물을 틀
고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씻게 해 주었다.
⑤ '언니가 저번에 알려 줬지?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물이…….'라는 말에서
'나'가 한아에게 마개를 눌러 세면대 물이 빠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엄마가 집을 비운 후에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서 '나'와 한아는
문을 열어 놓고 불일을 보고 있으며, 이제 세면대까지 막혀
서 세면대에 있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요
약하여 '나'는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 8 ㉢에서 '나'와 한아는 화장실 전등불 문제에 이어 세면대 문제
까지 발생하자 당황하고 있다. 또한 곤란함을 느끼고 짜증도
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에 두려움을 느끼는 말이
나 행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9 [서술형] ㉠에서 한아는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자 혼자 힘
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언니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0 [서술형] ‘나’는 한아가 자기를 불렀을 때 처음에는 ㉠의 원인을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않게 여겼다.

11 ‘나’가 한아에게 반찬 아껴 먹으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세면대의 배수관이 막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나’의 동생에 대한 애정과 언니로서 어린 동생을 잘 돌보는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 준다.

12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머리를 짧게 잘랐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남에게 기억되고 싶었던 모습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나’는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자신의 머리가 긴 이유가 ‘한아처럼 남들 눈에 좀 띄어 보려는 수작’은 절대 아니라고 하였다.
- ②, ④ ‘나’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얼굴이 엄청 커 보인다는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입고 다시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⑤ ‘나’는 ‘어떤 일에도 결코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 세면대가 막힌 이유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아의 긴 머리에 주목하게 되고, 어제와 오늘 ‘나’와 한아가 둘 다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14 [서술형] ‘나’는 한아가 학교생활을 할 때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한아의 머리를 짧게 자르지 못하게 하고 예쁘게 꾸며 주었다.

15 ‘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자 애쓴다. 답이 떠오르지 않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만년철물점에 들러 주인 할머니에게 해결 방법을 여쭙어 본다. 이런 행동을 통해 ‘나’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서술형] ‘나’는 무슨 물건을 사러 왔느냐는 철물점 할머니의 질문에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서요.’라고 말한다. ‘나’는 세면대 문제의 해결책을 여쭙어보려고 철물점을 찾았던 것이다.

17 ‘이노무(이놈의)’라는 비속어와, ‘찍, 찍찍, 찍찍찍’이라는 머리카락을 찍어 내는 소리를 흉내 낸 말(의성어)을 활용하여 평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을 청소하면서 엄마가 하는 잔소리를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 비유적 표현이나 속담을 사용하지 않았다.
- ③ ‘나’와 한아의 긴 머리카락을 청소하는 엄마의 상황에 맞는 표현이다.
- ④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그려 낸 것이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18 ‘만년철물점은 경빈이 할머니네 가게다.’라고만 했을 뿐, 철물점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9 철물점 할머니는 손주 경빈이의 어린이집 친구였던 한아를 보면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 그래서 한아에게 경빈이를 안 보고 싶냐고 묻기도 하고 간식을 챙겨 주는 것이다.

20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안내판을 훑어보면서 관리 사무소의 위치를 찾아냈다.

21 한성설비를 통해 세면대의 막힌 배수구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역시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기본 출장비가 오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뒤로 넘어갈 뻔’할 정도로 깜짝 놀란다. 그러고는 ‘누굴 호구로 아냐?’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리는 등 불만을 표시한다.

22 할머니는 출장비 오만 원에 얼굴을 찌푸리는 ‘나’를 보면서 출장비 오만 원을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3 [서술형] ‘나’가 한성설비에 세면대의 배수구를 뚫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니 할머니는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을 듣고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는다.

24 ‘빛 좋은 개살구’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역시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새 발의 피’는 ‘새의 가느다란 발에서 나오는 피’라는 뜻으로, 아주 하찮은 일이나 극히 적은 분량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가는 날이 장날’은 ‘일을 보러 가니 공교롭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우물 안 개구리’는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는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옆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5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심리를 나타내지만, ‘진짜로 누가 있을까 봐 가슴이 쿵쿵 뛰었다.’와 같이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서술하기도 한다.

오답 해설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가 주인공이면서 서술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독자는 ‘나’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낀다.

26 '나'는 처음에는 관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리 사무소를 찾아내자 '찾았다, 관리 사무소'라고 하며 기뻐한다. 하지만 집에 엄마가 없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고 관리 사무소를 나선다. 그 후 혹시라도 누가 자신을 따라올까 봐 두려워지는데 그 마음을 '가슴이 쿵쿵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7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나, 뒤늦게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거짓말을 하고 관리 사무소를 뛰쳐나온다.

28 [서술형] '나'는 집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모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는 엄마가 당부한 말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29 외삼촌과 엄마가 일을 같이 하면서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엄마와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은 외숙모가 아니라 외삼촌임을 알 수 있다.

30 '나'는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외숙모가 부르자 저녁을 먹으러 외숙모 댁에 간다. 그런데 막상 외숙모가 만삭이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외숙모의 힘든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한 잘못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ㄱ).

오답 해설

'나'가 한아에게 문제 상황을 외숙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거나 외숙모에게 집에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한 것은 만삭으로 힘들어하는 외숙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한 것이다.

31 한아는 집에 별일 없는지를 묻는 외숙모에게 바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나'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이를 통해 한아가 상황 파악을 잘하고 눈치가 있는 아이임을 알 수 있다.

32 [서술형] '나'의 집에 생긴 '별일'인 문제 상황은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고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이다.

33 13에서 '엄마가 주고 간 돈이 아직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였고, 그 돈 중 만 원을 내고 '나'와 한아는 비싼 과자를 사 먹는다. 따라서 엄마가 주고 간 돈을 편의점에서 처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4 '나'는 자전거 가게에 가서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찾아 그것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5 [서술형]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한아와 함께 자전거 가게로 가던 중 자전거 속도를 늦추고 뒤를 돌아본다. 이는 자신을 쫓아오는 한아를 배려하기 위해서이다.

36 '나'는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서 도구를 하나 찾아 손에 쥐어 본다.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너무 커서 '나'가 손으로 그것을 질 수 없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7 '나'는 자신이 찾는 물건을 손에 쥐자 그 물건이 할 수 있겠냐며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오기'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래서 꼭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 더욱 손아귀에 힘을 꽉 준 것이다. '오기'는 능력은 부족하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꼭 해결하고 말겠다는 '나'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8 15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동생에게 큰소리를 치고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라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9 ㉠은 '나'가 세면대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에 해당한다(ㄴ).

동생 한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아, 동생의 근심을 해소해 주고 싶은 마음에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ㄱ).

오답 해설

ㄷ, ㄹ. 자신이 고친다고 하였으므로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나'는 한아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세면대를 고칠 방법을 미리 알아본 것이 아니다. '나'는 한아에게 자신이 고치겠다는 말을 하고 난 후에 막힌 세면대를 뚫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 찾아보았다.

40 16에서 '나'는 자전거 가게에 가서 사장님으로부터 멍키 스페너를 빌린다. 따라서 '나'가 멍키 스페너를 본 곳은 자전거 가게이다.

41 [서술형]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나'의 처지를 이해하고 멍키 스페너를 빌려주었으며, '나'와 한아의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발라 주어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나가게 해 주었다.

42 [서술형] 17은 '나'가 드디어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려진 부분이다.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혼자 힘으로 세면대의 막힌 배수관을 뚫고 있다.

43 한아는 '나'가 시킨 대로 세면대 안의 물을 퍼서 바닥에 버렸고, 전등불이 나가 어두운 화장실에서 '나'가 작업하기 편하게 휴대 전화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 주었다.

44 '나'는 제일 먼저 세면대 아래쪽에 있는 배수관을 분리하고(㉠), 그 안에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세면대 위쪽의 마개를 빼내어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하였다(㉢). 그런 다음 분리된 마개와 배수관을 원상태로 맞추는(㉣, ㉤) 과정을 거쳐 막힌 세면대를 뚫었다.

45 ㉠의 '비밀 동굴'은 세면대 아래 쪽의 '부드럽게 구부러진 관(배수관)'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 ㉡의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는 배수관을 분리했을 때 나온 오물인 '검고 축축한 덩어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46 19의 첫 문장에서 '자전거 가게에 멍키 스페너를 돌려주고 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렀다.'라고 하였다.

47 '나 혼자 오면 절대로 얻어먹을 수 없는 요거르트'라는 말에서 한아를 각별히 챙기는 할머니의 애정을 엿볼 수 있다.

48 ㉠은 막혔던 세면대가 뚫려서 물이 잘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가 한 말이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뿌듯함의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을 뜻하는 말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후인 지금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③ '비웃음'은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 여기는 일이나 그렇게 웃는 웃음'을 뜻하는 말로, 자신이 해낸 일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자만심'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우월감'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다. '나'가 한아에게 자랑하며 뽐내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9 [서술형] '나'는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전구를 사러 와서 할머니에게 전구 가는 방법까지 여쭙어본다. 즉 화장실의 전등불이 나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50 '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년철물점 할머니가 도움을 주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깨닫고 만년철물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51 20은 화장실 전등불 문제도 마저 해결한 후 '나'가 오랜만에 한아를 목욕시키는 장면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결말' 단계에 해당한다.

52 엄마가 한아한테 유리컵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유리컵이 깨지면 다칠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친 적이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53 '나'는 엄마의 당부를 어기고 한아에게 플라스틱 컵이 아닌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준다. 이는 '나'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가 죄책감을 느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54 [서술형] 한아는 환한 불빛 아래에서 목욕을 하면서 세면대를 손으로 짚고 서서 "아, 좋다."라고 말한다.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목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55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닥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은 어려움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보여 주고 있다.

56 '나'가 잠이 쏟아져서 잠을 잔 것은, 화장실 세면대와 전등불 문제를 해결하느라 몸이 많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나'가 혼자 웃는 것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만족했기 때문이다.
- ② '잘했어, 김한경.'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한 것은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신의 행동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표현에서 '나'가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표현에서 '나'에게 자신감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다.

57 멍키 스페너는 '나'가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공구이며, '나'는 앞으로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멍키 스페너'는 '나'의 정신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58 멍키 스페너를 꽂 쥐었을 때 '나'는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스페너를 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멍키 스페너를 쥐었을 때의 느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44~48쪽

- 1 ㉢ 2 ㄹ-ㄱ-ㄷ-ㄴ-ㄱ 3 ㉤ 4 ㉣ 5 ㉡
6 ㉡ 7 동생의 근심을 해소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8 ㉡

1 '나'는 철물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관리 사무소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엄마의 당부가 떠올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2 '나'는 세면대가 막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만년철물점 할머니를 찾는다(ㄹ).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지만(ㄱ)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막힌 세면대 뚫는 방법을 찾아보고(ㄷ), 그때 필요한 공구인 멍키 스페너 자전거 가게에서 빌려 온다(ㄴ), 그 멍키 스페너를 가지고 스스로 세면대의 막힌 배수구를 뚫는 데 성공한다(ㄱ).

3 '나'는 배수구의 마개가 위로 올라와 틈새가 벌어졌는데도 물이 조금도 내려가지 않자 당황한다.

4 '멍키 스페너'는 '나'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든 도구이다. 이로 인해 '나'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 '멍키 스페너'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은 관련이 없다.

5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전인 초등학교 때의 '나'는 친구들 기억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한 후의 '나'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6 '나'는 관리 사무소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리 사무소 아저씨는 '나'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서술형] '나'는 어둠 속에서 동생 한아의 근심에 가득 찬 눈동자가 똑똑히 보여 자신도 모르게 "내일 고칠 거야."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동생의 근심을 해소해 주고 싶은 마음에 ㉠과 같이 말했다고 할 수 있다.

8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문제 해결에 임했고(㉡), 만년철물점 할머니, 자전거 가게 사장님 등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답 해설

- ㉡.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만년철물점 할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따라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처음부터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 ㉢. '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 참고 견뎠기 때문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49~51쪽

1 ㉣ 2 ㉤ 3 ㉡

1 '수십 번 넘어지고 일어나 다시 타도 또 넘어질 때'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는 성장의 순간이 아니라,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2 이 시는 누구에게나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과 같은 성장의 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주제를 '그러니 기다려 주세요'를 반복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 세뱃돈으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 일은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여 성장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53쪽

1 ㉠ 2 ㉠ 간당간당 ㉡ 아등바등

1 '사흘'은 3일을 뜻하므로, 9월 10일의 3일 전은 9월 7일이다.

오답 해설

- ㉡ '그저께'는 '어제의 전날'이므로 9월 8일이다.
- ㉢ '글피'는 '모래의 다음 날'이므로 9월 13일이다.

2 '간당간당'은 '달려 있는 작은 물체가 자꾸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 물건 따위를 거의 다 써서 얼마 남지 않게 된 상태'를 뜻하고, '아등바등'은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 대는 모양'을 뜻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56~61쪽

01 ㉤ 02 ㉠ 03 ㉤ 04 이 글에는 화장실 세면대의 배수구가 막힌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그 원인은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기 때문이다. 05 ㉤ 06 ㉤ 07 ㉣ 08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09 ㉤ 10 ㉤ 11 ㉢ 12 ㉣ 13 ㉠ 14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해 나가는 것 /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15 ㉢ 16 ㉠ 17 ㉡ 18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왔지만 지금은 불이 들어온다. 세면대가 막혀 물이 안 내려갔지만 지금은 물이 잘 내려간다. 19 ㉣ 20 ㉢ 21 ㉤ 22 ㉢ 23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01 (라)의 '교복 윗도리 주머니에 두 손을 밀어 넣었다.'와 (사)의 "집에 어른 안 계셔? 왜 학생이 왔어?"를 통해 주인공이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 '나'가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따라서 한적한 시골 마을이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주인공인 '나(한경)'이다.
- ㉢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인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02 이 글은 집, 만년철물점, 관리 사무소 그리고 다시 집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철물점 할머니와 '나', 관리 사무소 아저씨와 '나'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건을 요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여러 인물이 겪은 일이 아닌, 주인공인 '나'가 겪은 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④ '나'는 학생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이 소설의 사건은 주인공의 집에서 화장실 전등불과 세면대가 망가진 일한 가지이다.

03 철물점 할머니는 한성설비에서 세면대의 막힌 배수구를 뚫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한성설비를 소개한 것이다. 철물점 할머니와 한성설비 사장님 사이에 친분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4 [서술형] '나'가 해결하려는 문제 상황은 (나)에 나와 있는 세면대가 막힌 일이다. 그리고 (다)에서 '나'는 '나'와 한아가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빠진 긴 머리카락들이 배수구를 막았기 때문에 세면대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라)~(바)에서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을 찾아가는데, 주인 할머니는 한성설비와 관리 사무소에 물어보라고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06 (사)를 보면,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상황을 물어보기도 전에 '나'가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 거짓말을 하고 관리 사무소를 뛰쳐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나'는 오만 원을 들여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엄마에게 돈을 많이 쓴 것을 들킬까 봐 걱정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서술형]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만년철물점 할머니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09 이 글은 인물의 성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가가 상상한 것을 꾸며 쓴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은 시, ②는 보고서, ③은 주장하는 글, ④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10 (사)에는 화장실 문제를 모두 해결한 후 '나'와 한아가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아)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긴 '나'의 자신감이 드러나 있다. '나'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 (나)에서 '나'는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 동영상 찾아본다

(ㄴ). 그 과정에서 멍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에게 멍키 스패너를 빌려 온다 (ㄷ). (라), (마)에서 '나'는 빌려 온 스패너를 사용하여 세면대의 배수관을 분리하고 오물을 제거한 후(ㄱ) 다시 원래 상태로 맞추는(ㄹ) 과정을 거쳐 막힌 세면대를 뚫었다.

12 '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만년철물점'이라는 가게 이름이다. 오히려 주인 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태도로 볼 때 평소 친하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13 ㉠에서 '나'는 한아에게 오렌지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주면서 계속 플라스틱 컵만 쓰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를 통해 '나'가 한아도 오렌지주스를 유리컵에 따라 먹어도 될 만큼 성장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아도 자신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14 [서술형]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을 뜻한다.

15 (가)는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와 (다)는 '나'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라)와 (마)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한 후 '나'의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사건은 세면대 문제를 해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6 ㉠은 막힌 세면대 뚫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멍키 스패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공구를 자전거 가게에서 봤다는 것을 기억해 내는 장면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이므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뿌듯함과는 관련이 없다.

17 ㉠은 화장실에 전등불이 안 들어오는 데다가 세면대의 물까지 안 내려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렵거나 나쁜 일이 겹치어 일어날 때 쓰는 관용 표현인 '얹친 데 뚫친 격'과 관련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쇠귀에 경 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빼도 박도 못한다: '일이 몹시 난처하게 되어 그대로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④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 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 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8 [서술형] ㉠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가)에 나와 있는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과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이제는 불도 잘 들어오고 물도 잘 내려가는 상황을 나타낸다.

19 이 시에는 ‘철컹’이라는 의성어가 쓰인 부분에서 청각적 심상이,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모습이나 두 바퀴로 달리는 모습, 벽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 나무가 꽃을 피우는 모습 등에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각적 심상은 쓰이지 않았다.

20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 ‘그러니 기다려 주세요’와 같은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요, ~답니다’와 같은 문장을 끝맺는 말도 반복되고 있으며(㉡), ‘~할 때 ~이/가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 이 시는 이러한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ㄹ.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표현 방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시의 첫 연과 마지막 연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 않다.

21 이 시의 화자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전거를 타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도전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를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은 이전에 잘하지 못하던 것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의 순간을 의미한다.

22 ㉡은 성장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한다. 이 시의 주제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 누구나 성장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23 [서술형] 화자는 가을에 심은 나무도 봄이 되어야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본문 62~63쪽

개념 확인

- 1 ○ 2 × 3 × 4 ④ 5 ③ 6 ㉡-㉢-㉣
-㉠-㉡ 7 ① 8 ㉢ 기억 ⑥ 성찰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66~68쪽

- 1 ② 2 ④ 3 ⑤ 4 ① 5 ⑤

1 이 글에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한 말은 나타나 있으나, 인물 간의 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속마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느낀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수필이다.

④, ⑤ 글쓴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우울한 날 지나가던 할머니로부터 천 원을 받고 그 천 원을 간직하게 된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2 ‘기분이 땅굴을 파고들어 가는 우울한 때.’, ‘갑자기 몸의 피곤함이 몇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 ‘피곤하고 지친 데다 반쯤 잠에 취해 몽롱했다.’, ‘우울한 걸 넘어서 이유 없이 짜증이 날 지경’ 등의 구절에서 ‘나’가 피곤하고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글쓴이는 우울한 기분을 느낀 날 지친 몸으로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할머니로부터 천 원을 받았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이유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고 하였을 뿐, 글쓴이가 우울증이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② 글쓴이의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는 내용도, 동네 할머니들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다.

③ 여러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글쓴이에게 천 원을 주셨다.

④ 학교에서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생활했다고 하였다.

4 ①~⑤ 모두 글쓴이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그중 ‘기분이 땅굴을 파고들어 가는 우울한 때.’는 우울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는 글쓴이에게 천 원을 주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따뜻한 위로와 감동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5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과 느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자에게 유익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설명문이나 기사문 등이 지닌 가치로 볼 수 있다.

1 ③ 2 ⑤ 3 ① 4 ⑤ 5 ② 6 ④ 7 ②

- 1 '육하원칙에 따라 경험한 내용 정리하기'는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 쓰기의 과정 중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을 마련할 때 하는 일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글감을 정하는 방법에는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거나 사진첩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보는 것이 있다.
④, 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것도 글감을 정하는 좋은 방법이다.

- 2 부모님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혼자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 3 선생님은 마인드맵에 적은 내용 중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라고 하셨다. 내가 직접 산 '휴대 전화'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장소'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개요를 작성할 때는 '처음-중간-끝'에 들어갈 핵심 내용을 메모하고 글의 제목을 짓는다. 제목은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면서도 글의 중심 소재나 주제가 잘 드러나게 지어야 한다. 따라서 주제와 상관없는 제목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5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글쓴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이나 꾸며 낸 것, 과장된 내용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6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느낌을 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경험이 공적이고 보편적일 필요가 없다.

- 7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때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감정이나 깨달음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연결하여 써 나가는 것은 마인드맵의 방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1 ㉠ 주섬주섬, ㉡ 꼬깃꼬깃 2 (1) ㉠ (2) ㉡ (3) ㉢ (4) ㉣

- 1 '주섬주섬'은 '여기저기 널려 있는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꼬깃꼬깃'은 '구김살이 생기게 자주 함부로 구기는 모양'을 흉내 낸 말인 의태어이다. 따라서 빨랫감을 하나하

나 주워 거두는 모양을 표현할 때는 '주섬주섬'을, 편지를 구겨 놓은 모양을 표현할 때는 '꼬깃꼬깃'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 '미덥다'는 믿음이 가는 데가 있다는 의미이고, '곤혹스럽다'는 곤란한 처지가 되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처하다는 의미이다. '홀가분하다'는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고 가볍고 편안하다는 의미이며, '의기소침하다'는 기운이 없어지고 풀이 죽은 상태라는 의미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78~79쪽

01 ③ 02 ⑤ 03 ② 04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위로 05 ① 06 ⑤ 07 글쓴이는 힘들 때 힘이 되어 준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 01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쓸 때는 글쓴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경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서술해야 한다.

- 02 이 글에서 글쓴이가 감동을 느꼈던 의미 있는 경험은 지쳐서 앉아 있는 자신에게 지나가던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를 주셨던 일이다. 글쓴이는 그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오답 해설

- ① (가)에 글쓴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음악을 들었던 경험이 나타나 있으나, 이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니다.
② (라)에서 글쓴이가 눈물을 닦으며 길거리를 걸었던 이유는 슬퍼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위로에 감동을 받아서이다.
③ (가)와 (나)에 글쓴이의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한 감정 상태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기 전 글쓴이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은 아니다.
④ (다)에 등장한 할머니는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분이다. 또한 할머니는 글쓴이를 손녀라고 부른 적이 없으며 다만 당시의 손녀가 생각나서 글쓴이에게 천 원을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 03 ㉠과 ㉡은 글쓴이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며 우울한 상태임을, ㉢은 할머니가 주신 천 원을 받고 글쓴이가 감동받은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모두 글쓴이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 ㉢ 글쓴이의 의미 있는 경험이 시작되는 부분일 뿐 글쓴이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은 아니다.
㉣ 천 원짜리 지폐를 준 할머니의 행동에 상황을 파악하려는 반응으로 글쓴이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 04 [서술형] (라)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순간 울컥하는 느낌'을 '지쳐 있는데 위로받는 기분', '힘내라는 말 같은 것보다 훨씬 따뜻한' 감정이라고 표

현하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천 원을 받았을 때 느낀 ㉔는 글쓴이가 지쳤을 때 힘이 되어 준 ‘따뜻한 위로’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전하려는 주제이다.

- 05** 경험과 정서를 담은 글을 쓰면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ㄱ),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ㄴ).

오답 해설

- ㄷ.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ㄹ.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글은 주장하는 글이다.

- 06** 이 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마)의 중심 내용은 ‘천 원’을 고이 간직하며 지칠 때마다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이 글은 처음 (가), 중간 (나)~(라), 끝 (마)로 나눌 수 있다. 처음 부분인 (가)에서는 글쓴이가 우울한 날 한 할머니를 만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중간 부분은 (나)에서 글쓴이가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서술하고, (다)에서 지나가던 할머니가 글쓴이에게 천 원을 준 사건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다)의 사건을 통해 글쓴이가 할머니에게서 받은 따뜻한 위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7 [서술형]** ㉔에서 글쓴이가 할머니가 주신 천 원을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한 까닭은 천 원에 담긴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 때문이다. 즉 ‘천 원’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글쓴이가 지쳐 있을 때 힘이 되어 준 따뜻한 위로이며, 글쓴이는 그 따뜻한 위로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천 원을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88~93쪽

- 01** ⑤ **02** ② **03** ③ **04**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화장실의 불이 나가고 세면대의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05** ⑤ **06** ④ **07** ①
08 이동 경로에서 한성설비가 빠져야 한다. 수리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서 ‘나’가 한성설비에 들르지 않고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기 때문이다. **09** ② **10** ⑤ **11**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멍키 스페너를 빌려주었고, 동생 한아는 ‘나’가 일할 때 세면대 아래쪽으로 불빛을 비추어 주었다. **12** ②
13 ⑤ **14** ④ **15** ㉔에서 ‘나’는 한아에게 유리컵을 주지 말라는 엄마의 당부를 어김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16** ⑤ **17** ④ **18** ㉔ 천 원 / 꼬깃꼬깃한 천 원짜리 지폐 ㉔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위로의 소중함 **19** ① **20** ④ **21** ㉔, 지쳐 있을 때 할머니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느낀 감동을 표현한 것이다.

- 01** 이 글은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 소설이다. 소설은 실제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를 말한다.

오답 해설

①은 설명하는 글, ②는 시, ③은 주장하는 글, ④는 수필에 대한 설명이다.

- 02** (나)에서 ‘나’는 여덟 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으로 그동안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사지 못했던 과자를 사고 싶어 한다. ‘나’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다)에서 한아가 세면대 물을 내리지 못한 것은 세면대가 막혔기 때문이다.
④ (가)에서 엄마 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다. 한아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십만 원은 엄마가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준 비상금임을 알 수 있다.

- 03** ㉔은 세면대의 배수구 마개가 열려 있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아 ‘나’가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4 [서술형]** (가), (나)에서 ‘나’가 현재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아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다)의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 05** (나)에서 철물점 할머니는 관리 사무소에 한번 가 보라고 조언하면서 ‘원래 세면대까지는 안 봐 주는데’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집 안의 세면대를 수리해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라)에서 외숙모는 ‘나’와 한아를 위해 김치찌개를 챙겨 주었다.
② (가)에서 철물점 할머니가 나에게 한성설비에 물어보라고 말하면서 ‘길 건너 가게를 가리켰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가게는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한아는 집에 별일 없는지를 묻는 외숙모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사실을 말해도 되는지를 ‘나’에게 물은 후, ‘나’가 고개를 내젓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④ (라)에서 엄마랑 외삼촌이 일 때문에 광주까지 트럭을 끌고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 06** (다)에서 ‘나’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무소를 찾아갔다가 엄마의 당부가 생각나서 거짓말을 하고 뛰쳐나온다. 그러면서 누가 뒤따라올까 봐 두려워하는데, 이를 통해 ‘나’의 아이다운 면을 알 수 있다(ㄷ).

(라)에서 ‘나’는 별일 없는지를 묻는 외숙모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 이는 외삼촌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외숙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른스러운 면모라고 할 수 있다(ㄴ).

07 (가)에서 '나'는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집에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08 [서술형] (가)에서 철물점 주인 할머니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한성설비를 소개해 준다. 하지만 (나)에서 '나'는 수리 비용이 예상보다 비싸자 한성설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성설비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간다.

09 '나'는 막힌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관련 동영상을 찾아보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인 멍키 스패너를 빌려와 혼자 힘으로 세면대를 뚫는 데 성공한다. 따라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10 ㉠은 세면대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의 표현이다.

11 [서술형] (다)에서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인 멍키 스패너를 빌려주었다. 그리고 (라)에서 동생 한아는 '나'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세면대 아래쪽으로 불빛을 비추어 주었다.

12 (가)에는 '나'가 막힌 세면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나)에는 '나'가 화장실 전등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물점에서 전구를 사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 모든 일은 엄마가 집에 없는 동안 교복을 입는 청소년인 '나'가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성장기에 있는 미성숙한 인물이며(ㄷ), 이 소설은 주인공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ㄱ)을 알 수 있다.

13 (라)에서 '나'는 멍키 스패너를 써서 세면대 문제를 해결한 순간을 떠올리며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멍키 스패너가 '나'가 자신감을 얻고 한층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소재임을 알 수 있다.

14 ㉠은 멍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스스로 세면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꼈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지, 혼자 힘으로 동생을 잘 돌본 것과는 관련이 없다.

15 [서술형] '나'는 화장실 세면대와 전등불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한아에게 유리컵에 오렌지주스를 따라 주는데, 이는 엄마의 당부를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층 성장한 '나'가 이제는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16 (마)는 끝부분으로 할머니에게 받은 '천 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나와 있는 기분이 우울한 때가 글쓴이가 쓰려는 경험과 관련된 상황이다.

② (나)에서는 할머니를 만난 날에 글쓴이가 얼마나 우울하고 피곤한 상태였는지를 '갑자기 몸의 피곤함이 몇 배가 되는 것 같은 느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생생하고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③ (다)에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지쳐 있는 글쓴이에게 손녀 같이라며 천 원을 주신 사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④ (라)에는 (다)의 경험에서 글쓴이가 느낀 감동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7 (다), (라)를 보면, 글쓴이는 할머니가 주신 천 원을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손녀 생각이 나서 그런다는 할머니의 말솜에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서술형] (마)에서 글쓴이는 할머니가 주신 천 원을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천 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힘들 때 힘이 되어 준 따뜻한 위로였기 때문이다.

19 (가)의 화자는 자신에게도 성장의 순간이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있다. (나)의 글쓴이는 학생이며, 모르는 할머니에게서 손녀 같다는 말을 듣고 천 원을 받는 경험을 한다. 이를 통해 (가)와 (나)의 '나'는 모두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성장을 위해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가)에만 제시되어 있다.

③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위로의 소중함은 (나)의 주제이다.

④ (가)는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의 필요성을 노래하는 시이고, (나)는 힘든 이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위로의 소중함을 전하는 글로, 둘 다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공부하기, 바이올린 켜기, 탁구 치기 등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나)의 사건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글쓴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에 해당한다.

20 색채가 선명하게 대비되려면, 흰색과 푸른색 혹은 붉은색과 푸른색같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에는 이러한 색채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

21 [서술형] ㉠과 ㉡은 할머니의 말과 행동을 서술한 것이고, ㉢은 할머니가 한 말과 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므로 ㉠~㉢은 모두 글쓴이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은 훌쩍거리며 조금씩 눈물을 닦는 모습을 통해 글쓴이가 할머니로부터 위로받은 것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정서가 생생하고 진솔하게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01 '나'는 세면대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직접 배수관을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였다.

02 ㉠은 '나'가 한아에게 지독한 냄새를 맡지 않게 하려는 것이므로 한아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 준다. ㉡은 '나'가 막힌 세면대가 뚫린 것을 확인하고 한 말이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나'의 뿌듯함(만족감, 기쁨)을 보여 준다.

03 '나'는 문제 해결 이전에는 남에게 보이거나 기억되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문제 해결 이후에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04 ㉢ 가을에 심은 나무는 / 봄이 되어야 꽃 피울 수 있잖아요 ㉣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05 (1) 나도 모르게 두 바퀴로 세상을 뽕뽕 달릴 때 (2) 이전에 잘하지 못하던 것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의 순간

06 ㉦ 지쳐 있는 글쓴이를 보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녀 같아서 그런다며 천 원을 주셨다. ㉧ 힘들 때 힘이 되어 주는 따뜻한 위로의 마음에 감동하였다.

평가 요소 소설의 내용 파악하기

- 01** (가)는 '나'의 집 화장실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고, (나)는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며, (다)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문제 상황은 화장실 세면대의 배수구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고, '나'는 멍키 스패너를 사용하여 직접 배수관을 분리하여 세면대를 막히게 한 오물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문제 상황과 문제 해결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 02** ㉠에서 '나'는 분리한 배수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자 동생 한아에게 나가 있으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동생 한아가 지독한 냄새를 맡지 않게 하려는 '나'의 배려심을 엿볼 수 있다. ㉡은 '나'가 막힌 세면대 문제가 정말 해결된 것인지 조마조마해하다가 세면대의 배수관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한 말이다. 따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나'의 만족감, 기쁨, 뿌듯함 등을 드러낸다.

채점 기준

배점

㉠, ㉡의 심리를 까닭과 함께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심리와 까닭을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 ㉡의 심리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3점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인물의 변화(성장 과정) 이해하기

- 03** ㉢은 문제 해결 이전의 '나'가 바라던 자신의 모습으로 그때의 '나'가 남에게 보이거나 기억되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보여 준다. ㉣은 문제 해결 이후의 '나'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이 의미하는 바를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 짓고 문제 해결 이전과 이후로 대비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와 ㉣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제 해결 이전과 이후로 대비하지 않고 ㉢와 ㉣이 의미하는 바만 서술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비유적 표현에 담긴 주제 파악하기

- 04** '가을에 심은 나무'는 성장해야 하는 대상을, '봄'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꽃 피울 수 있잖아요'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비유한 것으로, 이 시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시구의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 05** ㉠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2연에서 화자가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는 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은 수많은 도전과 노력 끝에 이전에 잘하지 못하던 것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의 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을 형상화한 경험과 ㉡의 의미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을 형상화한 경험과 ㉡의 의미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에 표현된 경험과 정서 이해하기

- 06** 이 글에 담긴 글쓴이의 의미 있는 경험은 (가)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글쓴이를 보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손녀 같아서 그런다며 천 원을 준 경험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정서는 (나)와 (다)에 제시되어 있다. 글쓴이는 ‘지쳐 있는데 위로받는 기분’, ‘힘내라는 말 같은 것보다 훨씬 따뜻한.’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힘들 때 힘이 되어 준 따뜻한 위로에서 받은 감동을 서술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을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2 다양한 단어, 모두의 어휘

(1) 단어의 짜임과 새말

본문 104쪽

개념 확인

- 1 형태소 2 (1) 자립 형태소 (2) 형식 형태소 (3) 접사
(4) 복합어 3 ㉤ 4 혼밥, 열일

- 1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나누면 뜻을 잃어버린다.
- 2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부분이다.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한 단어는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이며, 이 둘을 ‘복합어’라고 한다.
- 3 <보기>의 ‘도’는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자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 4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다.’를, ‘열일’은 ‘열심히 일하다.’를 줄여서 만든 말이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08~115쪽

- 1 물/이/차갑-/~다 2 ㉠ 3 ㉡ 4 ㉢ 5 ㉣
6 ㉤ 7 김밥, 배부르다 8 ㉠ 9 ㉡ 10 ㉢
11 (1) 바람, 아주 (2) 춤추다, 불어오다 (3) 날개, 드높다
12 ㉤ 13 ㉡ 14 ㉢ 15 (1) ㉤ (2) ㉠ (3) ㉠
16 ㉡

- 1 조사 ‘이’도 하나의 단어이자 형태소이며, 형용사 ‘차갑다’는 어간 ‘차갑-’과 어미 ‘-다’ 2개의 형태소로 구분된다.
- 2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한다.
오답 해설
㉡ 형태소 중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다.
㉣ 의존 형태소 중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이다.
- 3 용언의 어간 ‘고프-’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 ① ‘배’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이다.
- ② 조사 ‘가’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다.
- ③ ‘몹시’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이다.
- ⑤ 어미 ‘-다’는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다.

4 ‘예쁘다’의 어간 ‘예쁘-’는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뜻을 지녀서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어근에 해당한다.

5 ‘군고구마’는 ‘굽다’와 ‘고구마’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베개: 베-(베다)(어근) + -개(접사) → 파생어
- ② 책가방: 책(어근) + 가방(어근) → 합성어
- ④ 욕심쟁이: 욕심(어근) + -쟁이(접사) → 파생어
- ⑤ 장난꾸러기: 장난(어근) + -꾸러기(접사) → 파생어

6 ‘오가다’는 어근 ‘오-(오다)’와 어근 ‘가-(가다)’와 어미 ‘-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돌다리: 돌(어근) + 다리(어근)
- ② 눈꽃송이: 눈(어근) + 꽃(어근) + 송이(어근)
- ③ 뛰놀다: 뛰-(뛰다)(어근) + 놀-(놀다)(어근) + -다(어미)
- ⑤ 뉘푸르다: 뉘-(뉘다)(어근) + 푸르-(푸르다)(어근) + -다(어미)

7 ‘김밥’은 어근 ‘김’과 어근 ‘밥’이 결합했고, ‘배부르다’는 어근 ‘배’와 어근 ‘부르-’가 결합했으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맨발: 맨-(접사) + 발(어근) → 파생어
- 새하얗다: 새-(접사) + 하얗-(어근) + -다(어미) → 파생어
- 바다, 아버지 → 단어

8 ‘헛소리’는 접사 ‘헛-’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베개: 베-(베다)(어근) + -개(접사)
- ② 덧나: 덧-(접사) + 나(어근)
- ④ 엿보다: 엿-(접사) + 보-(어근) + -다(어미)
- ⑤ 손가락질: 손(어근) + 가락(어근) + -질(접사)

9 ‘첫눈’은 어근 ‘첫’(관형사)과 어근 ‘눈’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덧산: 덧-(접사) + 산(어근) → 파생어
- ③ 나무꾼: 나무(어근) + -꾼(접사) → 파생어
- ④ 맨정신: 맨-(접사) + 정신(어근) → 파생어
- ⑤ 수다쟁이: 수다(어근) + -쟁이(접사) → 파생어

10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단. 따라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접사는 어근에 붙어 뜻을 더해 줄 뿐이므로 홀로 단어를 형성할 수 없다.
- ②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 ③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 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고,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 단일어와 합성어를 구분하는 것은 어근의 개수이다.

11 (1) ‘바람’, ‘아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2) ‘춤추다’는 어근 ‘춤’과 어근 ‘추-(추다)’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불어오다’는 어근 ‘불-(불다)’과 어근 ‘오-(오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3) ‘날개’는 어근 ‘날-(날다)’과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고, ‘드높다’는 접사 ‘드-’와 어근 ‘높-(높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2 ‘오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명사이므로 단일어이다.

오답 해설

- ① 길이: 길-(길다)(어근) + -이(접사) → 파생어
- ② 날개: 날-(날다)(어근) + -개(접사) → 파생어
- ③ 새까맣다: 새-(접사) + 까맣-(어근) + -다(어미) → 파생어
- ④ 방귀쟁이: 방귀(어근) + -쟁이(접사) → 파생어

13 언어 순화는 비속어와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일이다.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외국어로 바꾸는 것은 언어 순화로 볼 수 없다.

14 ‘누리집’은 ‘홈페이지’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순화하고자 만든 새말이다.

오답 해설

- 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다.’의 줄임말로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표현을 신선하게 표현하여 재미를 더하기 위해 만든 새말이다.
- ②, ④, ⑤ 모두 예전에 없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 생겨난 새말이다.

15 (1) ‘생축’은 ‘생일 축하’를 줄인 말이다.

(2) ‘엄지족’은 어근 ‘엄지’와 접사 ‘-족’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3) ‘추구미’는 어근 ‘추구’와 어근 ‘미’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16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음.’을 줄여서 만든 새말이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16~117쪽

1 ② 2 ③ 3 ④

1 ‘꿀단지 식당’에서 ‘꿀단지’는 어근 ‘꿀’과 어근 ‘단지’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식당’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2 ‘손맛 식당’에서 ‘손맛’은 어근 ‘손’과 어근 ‘맛’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에서 ‘현아네’는 어근 ‘현아’와 접사 ‘-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꽃내음: 꽃(어근) + 내음(어근) → 합성어
- ② 책누리: 책(어근) + 누리(어근) → 합성어
- ④ 엄마밥: 엄마(어근) + 밥(어근) → 합성어
- ⑤ 가위소리: 가위(어근) + 소리(어근) → 합성어

- 3 '러닝 크루'는 '달리기'라는 뜻의 'running'과 '무리'라는 뜻의 'crew'가 합쳐진 말로 외국어가 그대로 사용된 표현이다. 우리 말로 바꿨을 때 적절한 표현은 '달리기 동호회'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19쪽

1 ④ 2 ②

- 1 ㉠에는 문맥상 '사물이 외부로 나타나 보이는 모양'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형식'이 적절하다. ㉡에는 문맥상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의존'이 적절하다.
- 2 '-새'는 '모양, 상태, 정도'의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로 '쓰임새', '모양새', '걸음새'와 같이 쓰인다.

오답 해설

- ① -꾼: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외 다양한 뜻을 가진 접미사 ㉡ 나무꾼, 낚시꾼
 ③ -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 ㉡ 날개, 베개
 ④ -질: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 외 다양한 뜻을 가진 접미사 ㉡ 가위질, 결눈질
 ⑤ -쟁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겁쟁이, 수다쟁이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22~125쪽

- 01 ④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6 ③
 07 '팔다리'는 어근 '팔'과 어근 '다리'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합성어이다. / '풋사과'는 접사 '풋-'과 어근 '사과'가 결합하였으므로 파생어이다. 08 ① 09 ③ 10 ④ 11 ⑤
 12 ④ 13 ③ 14 ① 15 a 팝업창, 퍼스널 컬러 (또는 스포광고, 클래식 수트, (가을) 룩, 잇 아이템 중 2개 넣기) / ⑥ 외국어의 뜻을 모르면 단어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16 ④ 17 ④ 18 '욕심꾸러기'는 어근 '욕심'과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이와 같은 짜임의 단어에는 '잠꾸러기', '장난꾸러기'가 있다. 19 ③ 20 ⑤ 21 ⑤
 22 ⑤ 23 ⑤ 24 ④ 25 ④ 26 ⑤ 27 ④
 28 ① 29 생각(어근) + 그물(어근) / '생각그물'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의 형성 방식으로 만든 단어이다.

- 01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구분한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오답 해설

- ① 홀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다.
 ② 조사와 용언의 어간은 모두 의존 형태소에 속한다. 이 중 조사는 형식 형태소에 속하고,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속한다.
 ③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⑤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 02 '옆집'은 '옆(어근) + 집(어근)'으로 나눌 수 있다. '강아지들이'는 '강아지(어근) + -들(접사) + 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귀엽다'는 '귀엽-(어근) + -다(어미)'로 나눌 수 있다.

- 03 <보기>에 사용된 실질 형태소는 '욕심, 동생, 간식, 혼자, 다, 먹-' 6개이다.

오답 해설

'-쟁이'는 접사, '이'와 '을'은 조사, '-었-'과 '-다'는 어미로 모두 형식 형태소이다.

- 04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민소매'는 어근 '소매' 앞에 '그것이 없음' 또는 '그것이 없는 것'의 뜻을 더하는 접사 '민-'이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밤나무: 밤(어근) + 나무(어근) → 합성어
 ② 누리집: 누리(어근) + 집(어근) → 합성어
 ④ 눈사람: 눈(어근) + 사람(어근) → 합성어
 ⑤ 물방울: 물(어근) + 방울(어근) → 합성어

- 05 '낯설다'는 얼굴이라는 의미의 어근 '낯'과 익숙하지 못하다는 의미의 어근 '설-(설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모양새: 모양(어근) + -새(접사) → 파생어
 ③ 국그릇: 국(어근) + 그릇(어근) → 합성어
 ④ 주름살: 주름(어근) + 살(어근) → 합성어
 ⑤ 잠꾸러기: 잠(어근) + -꾸러기(접사) → 파생어

- 06 '개울'은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맨발: 맨-(접사) + 발(어근) → 파생어
 ② 비웃: 비(어근) + 웃(어근) → 합성어
 ④ 그믐달: 그믐(어근) + 달(어근) → 합성어
 ⑤ 헛고생: 헛-(접사) + 고생(어근) → 파생어

- 07 [서술형] '팔다리'는 어근 '팔'과 어근 '다리'가 결합하였으므로 합성어이고, '풋사과'는 접사 '풋-'과 어근 '사과'가 결합하였으므로 파생어이다.

- 08 새말은 뜻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 09 • '드론'은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가 개발되면서 새롭게 생긴 말로 현재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열일’은 온라인 대화 등에서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 ‘통킵’은 ‘툼블리’라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10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 ②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다.
- ③ 파생어는 접사와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다.
- ⑤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거나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는 복합어라고 한다.

11 <보기>의 문장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	어제(부사) / 앞산(명사) / 예서(조사) / 들국화(명사) / 를(조사) / 보았다(동사)
형태소	어제(어근) / 앞(어근) / 산(어근) / 예서(조사) / 들-(접사) / 국화(어근) / 를(조사) / 보-(동사의 어간) / -았-(어미) / -다(어미)

개념 플러스

품사별 형태소 구분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어제(부사) • 앞, 산, 국화(명사)	• 보-(동사의 어간)
형식 형태소	없음.	• 예서, 를(조사) • 들-(접사) • -았-, -다(어미)

12 ‘날개’는 어근 ‘날-(날다)’과 접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알길’은 어근 ‘알’과 어근 ‘길’이 결합한 합성어이며, ‘활짝’은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13 ‘애벌레’는 접사 ‘애-(‘어린’ 또는 ‘작은’의 뜻을 더해 줌.)’와 어근 ‘벌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매우 → 단일어
- ② 봄바람: 봄(어근) + 바람(어근) → 합성어
- ④ 가위질: 가위(어근) + -질(접사) → 파생어
- ⑤ 헛수고: 헛-(접사) + 수고(어근) → 파생어

14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다.’를, ‘심쿵’은 ‘심장에 쿵 하고 충격이 왔다.’를 줄인 새말이다. ‘깜놀’은 ‘깜짝 놀라다.’를, ‘열일’은 ‘열심히 일하다.’를 줄인 새말이다.

오답 해설

- ② ‘둘레길’은 ‘둘레(어근) + 길(어근)’, ‘누리집’은 ‘누리(어근) + 집(어근)’으로 분석되므로 둘 다 합성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③ ‘금손’은 ‘금(어근) + 손(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고, ‘비대면’은 ‘비-(접사) + 대면(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파생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④ ‘공청기’는 ‘공기청정기’를 줄여서 만든 새말이고, ‘누리꾼’은 ‘누리(어근) + -꾼(접사)’으로 분석되므로 파생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다.
- ⑤ ‘폰질’은 ‘폰(phone) + -질(접사)’로 분석되므로 파생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고, ‘인공지능’은 ‘인공(어근) + 지능(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의 방식으로 만든 새말이다.

15 [서술형] ‘팝업창’과 ‘스팟광고’는 각각 ‘pop up(불쑥 나타나다) + 창’, ‘spot(지점) + 광고’로 외국어와 우리말을 합성하여 만든 새말이다.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클래식 슈트(classic suit)’, ‘룩(look)’, ‘잇 아이템(it item)’은 외국어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새말이다. 이와 같이 외국어를 그대로 새말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의 뜻을 모르면 새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16 접사는 어근에 붙어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 ①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한 것을 단일어라고 한다.
- ② 어근 ‘높-’은 접사 ‘-이’와 결합하여 ‘높이’라는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 ③ 복합어 중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을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을 파생어라고 한다.
- ⑤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어근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등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고,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같은 의존 형태소도 있다.

17 ‘구름이 새하얗다.’는 ‘구름’(자립, 실질), ‘이’(의존, 형식), ‘새-’(의존, 형식), ‘하얗-’(의존, 실질), ‘-다’(의존, 형식)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18 [서술형]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욕심꾸러기’는 ‘욕심’(어근) + ‘-꾸러기’(접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파생어이다. 이 접사가 사용된 단어로는 ‘잠꾸러기’, ‘장난꾸러기’, ‘말썰꾸러기’, ‘걱정꾸러기’ 등이 있다.

19 ‘칼국수’는 어근 ‘칼’과 어근 ‘국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순대 → 단일어
- ② 김밥: 김(어근) + 밥(어근) → 합성어
- ④ 통닭: 통-(접사) + 닭(어근) → 파생어
- ⑤ 떡튀순: 떡(복미) + 튀(김) + 순(대) → 줄임말

20 ㄱ. ‘공기청정기’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 ‘노래방’(노래 + 방)과 ‘누리꾼’(누리 + -꾼)은 합성과 파생의 방식을 통해 만든 말이다.
 르. ‘맷글’은 국어 순화를 위해 외국에서 온 말(리플)을 의도적으로 우리말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21 ‘먹요일’은 ‘치팅 데이’를 대신하는 말로, 어근인 동사의 어간 ‘먹-(먹다)’과 어근(명사) ‘요일’을 결합한 합성어이다.

22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단어이다. 즉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되었다.

23 어근과 어울려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접사이다.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24 '많이'의 '많-'은 어근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고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25 '좋다'의 '좋-'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나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는'과 '가'는 조사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 ② '머리'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 ⑤ '-다'는 어미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26 '돌다리'는 '돌(어근)'과 '다리(어근)'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복숭아꽃' 역시 '복숭아'(어근)와 '꽃(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알밤: 알-(접사)+밤(어근) → 파생어
- ② 털보: 털(어근)+-보(접사) → 파생어
- ③ 햇과일: 햇-(접사)+과일(어근) → 파생어
- ④ 겁쟁: 겁(어근)+-쟁이(접사) → 파생어

27 '덧버선'은 어근 '버선' 앞에 접사 '덧-'이 붙은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높이: 높-(높다(어근))+ -이(접사)
- ② 날고기: 날-(접사)+고기(어근)
- ③ 치솟다: 치-(접사)+솟다(어근)
- ⑤ 가위질: 가위(어근)+ -질(접사)

28 '첫사랑'은 어근 '첫'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첫'은 '맨 처음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 ㉠ 겨울날: 겨울(어근)+날(어근) → 합성어
- ㉡ 마음싸: 마음(어근)+-싸(접사) → 파생어
- ㉢ 콩나물: 콩(어근)+나물(어근) → 합성어
- ㉣ 덮밥: 덮-(덮다(어근))+밥(어근) → 합성어

29 [서술형] '생각그물'은 '마인드맵(mind map)'이라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이다. '생각'(어근) + '그물'(어근)로, 우리말의 단어 형성 방식 중 합성의 방식을 이용하여 만든 새말이다.

(2) 어휘의 양상과 쓰임

본문 126쪽

개념 확인

- 1 세대 2 (1) 전문어 (2) (어휘의) 변이 (3) (어휘의) 팽창
- 3 줄임말 4 ②

1 세대에 따라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다.

2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을 전문어라고 한다. 또한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을 어휘의 변이라고 하며, 어휘의 변이에 따라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어휘의 팽창이라고 한다.

3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새말은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줄임말의 형태인 경우가 많다.

4 세대, 분야, 매체에 따라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한 어휘 사용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 ③ 인터넷 용어를 일상 대화에서 사용할 때는 대화 상대, 맥락, 장소, 때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로,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30~135쪽

- 1 ⑤ 2 ③ 3 ⑤ 4 ② 5 알롱주, 그랑바트망
- 6 ⑤ 7 ⑤ 8 ⑤ 9 ㄱ, ㄴ, ㄹ 10 ③

1 손녀와 할머니는 세대가 달라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 그러나 맥락과 상황을 통해 상대방이 사용하는 어휘의 뜻을 파악하고 있으며,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소식적'은 '짧었을 때'라는 뜻을 가진다.

3 내가 사용하는 어휘의 뜻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당황하거나 불쾌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 어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①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다고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②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여러 어휘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어휘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 ③, ④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 대화를 중단하고 갑자기 사전을 찾아보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고,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때는 상황과 맥락을 통해 짐작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4 형은 야구 용어인 '번트를 대다.'의 뜻을 알고 동생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⑤ 야구 경기 중계는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경기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 5 '알롱주'는 발레에서 한 동작이 끝날 때 또는 새로운 동작을 시작할 때 팔을 길게 늘려 주거나 크게 펼치는 것을 뜻한다. '그랑바트망'은 발레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 펴서 90도 이상 힘 있게 차올리는 동작을 뜻한다. 모두 발레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6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서는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지만, 일반인에게 사용했을 때는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 7 온라인 대화는 주로 사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 'ㅇㅋ, 노잴, ㄴㄴ, 강추, 갓핑작, ㅋㅋㅋ, 열공' 등과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줄임말, 새말, 유행어 등을 많이 사용한다.
- 8 'ㅇㅋ, ㄴㄴ, 열공, 강추'는 온라인 대화에서 빠른 소통을 위해 초성이나 첫 글자만 따서 원래 표현을 줄인 말이다. 'ㅋㅋ'는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떠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말이다.
- 9 인터넷에서는 한자어보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줄임말 등을 통해 생성된 새말을 활발하게 사용한다.
- 10 온라인 매체 어휘는 생겨난 배경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므로 재미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그 말이 생겨난 배경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사용하기 적절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
- ②, 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고 상대방이 잘 모르는 말이면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말의 뜻을 설명해야 한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36~137쪽

- 1 ③ 2 ⑤ 3 ④ 4 ⑤

1 '갓핑작'은 인터넷 용어로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전문어이다.

2 '소염제'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해당 분야의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오답 해설

- ① '소염제'는 약의 명칭으로 외국어를 순화한 말이 아니다.
- ②, ③ 청소년어나 개인적인 친밀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전문어이다.
- ④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지역 방언'이다.

개념 플러스

지역 방언

한 언어 안에서 지역적 원인에 따라 달라진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다양한 지역 방언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같은 지역의 사람들끼리 방언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면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대화 상대의 나이가 어리면 어휘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쉬운 단어를 사용하거나, 어려운 어휘일 경우 뜻을 풀이해 주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름길'의 사전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에 대한 내용일 뿐 세대·분야·매체별 상황을 고려한 어휘 사용의 사례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매체 이용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② 친구에게는 줄임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과제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줄임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르는 전문어가 나왔을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 ④ 다른 세대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39쪽

- 1 ④ 2 ③

1 ㄷ, ㄹ에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를 뜻하는 '관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해설

- ㄱ: '습관적으로 늘 씬.'이라는 의미의 '관용'이 적절하다.
- ㄴ, ㄴ: '정부 기관이나 국립 공공 기관에서 사용함.'이라는 의미의 '관용'이 어울린다.

2 '남이 잘되어 심술이 나다.'의 의미를 가진 관용 표현은 '배가 아프다'이며, 이를 활용한 속담으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 ② 손이 크다: 씬셈이가 후하고 크다.
- ④ 코가 빠지다: 기가 죽고 맥이 빠지다.
- ⑤ 목에 힘을 주다: 거만하게 굴거나 남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

01 ② 02 ④ 03 '열공'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휘는 '깜놀'로 '깜짝 놀라다.'를 줄여서 만든 말이다. 이와 같은 어휘는 주로 젊은 세대가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는 주로 젊은 세대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④ 10 ① 11 ④ 12 약의 성분이 천천히 나오는 알약으로, 다른 알약에 비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가는 13 ② 14 ③ 15 ① 16 ③ 17 ④ 18 엄마가 '광쿨'이라는 어휘의 뜻을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에 대화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는 뜻을 함께 설명해 주어야 한다.) 19 ⑤ 20 ⑤ 21 ④

01 (가)는 세대가 다른 할머니와 손녀의 대화로,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은 한자어, ㉡은 외래어로 모두 '결혼하기를 청함.'을 뜻한다. 이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어휘의 변이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보기>의 '열공'은 '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임말이다. (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휘는 '깜짝 놀라다.'의 줄임말인 '깜놀'이다. 줄임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보통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이거나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04 (나)에서 동생은 '번트를 대다.'라는 어휘의 뜻과 그러한 전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형은 동생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해 주고 있다.

05 ㉢ '희생 번트'는 야구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다. 전문어는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06 (나)에서 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번트를 대다.'의 의미를 동생에게 설명하고 있다. 해설자들의 말과 경기의 앞뒤 상황을 통해 짐작한 것이 아니다.

07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 경우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 의미를 짐작해 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잘 모르는 어휘는 맥락과 상황을 통해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②, ③, ④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어휘를 선택하거나 풀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내가 사용하는 어휘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08 (가)에서는 '번트를 대다.', '희생 번트', '스퀴즈 번트'와 같은 야구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구 중계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09 '그릇', '순가락'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 '스퀴즈 번트'나 ㉡ '서방정'과 같은 전문어가 아니다.

10 ㉠, ㉡은 전문어로 의미가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하나의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다양하지 않다.

11 '경구'는 '약이나 세균 따위가 입을 통하여 몸 안으로 들어감.'이라는 의미의 의학 용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득점'은 '시험이나 경기 따위에서 점수를 얻음.'을 뜻한다. '시험이나 경기 따위에서 점수를 잃음.'은 '실점'의 의미이다.
- ② '유효'는 '보람이나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 ③ '방출'은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을 뜻한다. '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은 '선출'의 의미이다.
- ⑤ '응해'는 '고체의 물질이 열에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되는 일'을 뜻한다. '액체 따위가 엉겨서 뭉쳐 딱딱하게 굳어짐.'은 '응고'의 의미이다.

12 [서술형] 전문가가 일반인과 소통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서방정'은 약 성분이 천천히 나오고 천천히 흡수되는 약으로,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13 (가)에는 'ㅇㅋ, 노잌, ㄴㄴ, 강추, 열공', (나)에는 '광쿨'과 같은 줄임말이 나타나 있다. 이는 일상 대화와 달리 빠르게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단어나 문장을 줄인 말로 매체에 따른 어휘의 변이가 일어난 상황을 보여 준다.

14 (가)에 사용된 어휘는 인터넷 용어이므로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가)에 사용된 어휘는 인터넷 용어로,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휘가 생겨난 배경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② 인터넷 용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또래 친구들끼리 인터넷 용어의 뜻을 매번 풀이하며 사용하는 것은 대화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재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 ④ 인터넷 용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적 대화에서 재미를 주거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6 '강추'는 '강력(하게) 추천(한다.)'을 줄인 말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영화를 보라고 추천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ㅇㅋ: '그렇다'를 의미하는 '오케이'의 초성인 'ㅇㅋ'만 사용한 인터넷 용어이다.
 ② ㄴㄴ: '아니다'라는 뜻의 'no'를 반복한 '노노'의 초성인 'ㄴㄴ'만 사용한 인터넷 용어이다.
 ④ 갯띵작: '신'을 뜻하는 'God'과, '명작'의 '명' 대신 글자 모양이 비슷한 '띵'을 활용하여 만든 인터넷 용어이다.
 ⑤ 열공: '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임말이다.

개념 플러스

표기의 유사성을 이용한 '아민정음'

'아민정음'이란 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꾸어 단어를 표기하는 것에 대한 인터넷 용어이다. 처음에는 국내 야구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되다 점차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로 확산되었고, 젊은 층에서 유행하였다. 아민정음은 한글 파괴에 일조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글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변형하여 쓴다는 평가도 있다.

귀 ↔ 커	귀여움 → 커여움
비 ↔ 네	비밀 → 네밀
180도 회전	폭풍눈물 → 롬곡눈눈

17 (나)의 '광클'은 인터넷 용어이자 새말로 '광속 클릭'의 줄임말이다. 'ㅇㅋ, 노잼, 강추, 갯띵작, 열공'은 모두 인터넷 용어이지만 'ㅇㅋ, 노잼, 강추, 열공'은 줄임말이고, '갯띵작'만 비슷한 글자 모양('띵' → '명')을 활용하여 만든 말이다.

18 [서술형] (나)에서 엄마는 '광클'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몰라서 학생과 원활한 대화를 하지 못하였다. '광클'은 '광속 클릭'의 줄임말로 '매우 빠른 속도로 마우스를 클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이나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일 수 있으나 모두가 알 수 있는 어휘는 아니다.

19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새말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의 발달은 어휘의 팽창을 촉진한다.

20 전문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어가 증가하고 있다.

21 어휘의 변이는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구 선수'와 '아나운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므로, 어휘의 변이와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청혼'(한자어)과 '프러포즈'(외래어)는 '결혼을 청함'이라는 같은 의미의 말이다.
 ② '댕댕이'는 '멍멍이'처럼 '개'를 뜻하는 말로, '멍'과 '댕'의 비슷한 모양을 바탕으로 만든 새말이다.
 ③ '상기도 감염'은 '감기'의 전문어이다.
 ⑤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음'의 줄임말이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152~157쪽

- 01** ② **02** ④ **03** ③ **04** 찾-, 날- **05** ⑤
06 ④ **07** ② **08** ⑤ **09** ② **10** ③ **11** ②
12 ⑤ **13** ② **14** ② **15** '맛점'은 '맛있는 점심'을 줄인 말이다. 이와 같은 어휘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6** ⑤ **17** '봄바람'은 '봄 + 바람', '앞길'은 '앞 + 길'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18** ⑤ **19** ⑤ **20** ③
21 ⑤ **22** ⑤ **23** ⑤ **24** ④ **25** 스쿼즈 번트
26 ③ **27** ④ **28** ⑤ **29** ④ **30** ③ **31** ④
32 ② **33** ① **34** ⑤ **35** ②

01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뜻을 지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③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부분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④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어이다.
 ⑤ 둘 이상의 어근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다.

02 '달빛이 정말 밝다.'는 '달(실질, 자립) / 빛(실질, 자립) / 이(형식, 의존) / 정말(실질, 자립) / 밝-(실질, 의존) / -다(형식, 의존)'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03 '저녁노을이 햇사과처럼 빨강다.'라는 문장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저녁(실질, 자립) / 노을(실질, 자립) / 이(조사-형식, 의존) / 햇-(접사-형식, 의존) / 사과(실질, 자립) / 처럼(조사-형식, 의존) / 빨강-(용언의 어간-실질, 의존) / -다(어미-형식, 의존)'가 된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는 '이, 햇-, 처럼, 빨강-, -다'이다.

오답 해설

- ① '저녁노을이 햇사과처럼 빨강다.'에서 단어는 '저녁노을, 이, 햇사과, 처럼, 빨강다' 5개이다. '저녁노을'은 '저녁 + 노을'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햇사과'는 '햇- + 사과'로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4 <조건>의 1은 실질 형태소를, 2는 의존 형태소를 의미한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것은 용언의 어간이므로 '찾아'의 '찾-'과 '날자'의 '날-'이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소이다.

05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이다.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더해 주는 접사는 '-장이'이다. '간판장이', '웅기장이' 등의 예가 있다.

06 ㄴ은 '개-(접사) + 떡(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ㄹ은 '떡(어근) + -보(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ㄴ, ㄹ 모두 '떡'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ㄱ은 접사가 아니라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② ㄴ은 '개-(접사)+떡(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고, ㄷ은 '떡(어근)+국(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ㄹ은 '떡(어근)+-보(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고, ㅁ은 '시루(어근)+떡(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⑤ ㄷ, ㅁ은 '떡'에 다른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어근은 홀로 쓰일 수 있다.

- 07** ㉠은 어근 '음식'에 접사 '-점'이 붙은 파생어가 맞다.

오답 해설

- ① ㉠만 단일어고, ㉡은 어근 '손'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은 접사 '무-'가 어근 '농약'에 붙은 파생어이다.
④ ㉣은 어근 '불'과 어근 '고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⑤ ㉤은 합성의 방식, ㉥은 파생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 08** '지우개'는 어근 '지우-(지우다)'와 접사 '-개(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부채질: 부채(어근)+-질(접사) → 파생어
② 팔다리: 팔(어근)+다리(어근) → 합성어
③ 풋사과: 풋-(접사)+사과(어근) → 파생어
④ 솜사탕: 솜(어근)+사탕(어근) → 합성어

- 09** '검붉다'는 어근 '검-(검다)'과 어근 '붉-(붉다)'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여우비: 여우(어근)+비(어근) → 합성어
③ 양떼구름: 양(어근)+떼(어근)+구름(어근) → 합성어
④ 눈꽃송이: 눈(어근)+꽃(어근)+송이(어근) → 합성어
⑤ 물고기자리: 물(어근)+고기(어근)+자리(어근) → 합성어

- 10** '군밤'은 어근 '굽-(굽다)'이 활용한 형태인 '군'과 어근 '밤'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군살'은 접사 '군-(쓸데없는'의 뜻을 더해 줌.)이 어근 '살'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해설

- ㄱ. '군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ㄴ. '군밤'은 합성어이고 '군살'은 파생어이므로 단어를 형성한 방식이 서로 다르다.

- 11** '뒤편'은 '뒷-(뒷다)'과 '편'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은 어근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해설

- ④ 동사가 명사 앞에 올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결합 방식으로는 '뒷은'이 되어야 하는데, '뒤편'은 '-은' 없이 용언의 어간이 명사 앞에 바로 붙었다.

- 12** ⑤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 13** 새말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타났을 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비번'은 '비밀번호'의 줄임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드론: 자율 항법 장치에 의하여 자동 조종되거나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원격 조종되는 무인 비행 물체. (출처: 우리말샘)
③ 자율주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도로에서 달리게 하

는 일. (출처: 우리말샘)

- ④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⑤ 공기청정기: 공기 속의 먼지나 세균 따위를 걸러 내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4** '누리집'과 '누리꾼'은 '홈페이지'와 '네티즌'이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만든 새말이다. ②의 '넷글'은 '리플'을, '손전화'는 '핸드폰'을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해 만든 새말이다.

- 15** [서술형] '맛점'은 '맛있는 점심'의 줄임말이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소통할 때 빠르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문자를 신속하게 입력하는 방식 중 하나로 줄임말이 나타나게 되었다.

- 16** ㉠을 형태로 나누면 '나(실질, 자립) / 는(조사-형식, 의존) / 아주(실질, 자립) / 작-(용언의 어간-실질, 의존) / -은(어미-형식, 의존) / 애-(접사-형식, 의존) / 벌레(실질, 자립)'이다.

- 17** [서술형] '봄바람'은 '봄 + 바람'으로 분석되며,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앞길'도 '앞 + 길'로 분석되며,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18** '날개'는 '날-'(어근)과 '-개'('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는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다. '무지개'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오답 해설

- ① 뒤편: 뒷-(뒷다)(어근)+-개(접사) → 파생어
② 개꿈: 개-(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꿈(어근) → 파생어
③ 지우개: 지우-(지우다)(어근)+-개(접사) → 파생어
④ 개살구: 개-(야생 상태의'의 뜻을 더하는 접사)+살구(어근) → 파생어

- 19** (다)의 온라인 대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휘와 다른, 매체를 사용할 때의 어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용어로 인해 어휘의 변이와 팽창이 가속화된다.

- 20** '스윙스 번트'는 야구에서 공을 방망이로 치는 기술 중 하나이고, '3루 주자'는 야구에서 3루에 나가 있는 선수로, 둘 다 야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나머지는 같은 의미의 어휘를 연결한 것이다.

- 21** (가)에서 손녀와 할머니는 세대 차이로 인해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지만, 상대가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 22**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마음에 두었다는 내용과 의미가 통한다.

오답 해설

- ① 각골난양: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 ②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 ③ 독수공방: 혼자서 지내는 것.
- ④ 망양지탄: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23 야구 해설자 1, 2는 야구 경기 중계를 하며 야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희생 번트, 스쿼즈 번트, 3루 주자’ 등의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야구 해설자 1의 말에 줄임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야구 해설자 1은 야구 팬을 대상으로 야구 경기 중계를 진행하므로 전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③ 야구 해설자들은 전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문 용어를 주고받으면서 야구 경기 중계를 진행하고 있다.
- ④ 야구 해설자 2의 말에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24 (나)의 ㉠ ‘희생 번트’와 같은 어휘는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전문 분야가 세분화 되면 어휘의 수가 늘어난다.

오답 해설

- ③ 전문어는 ‘희생 번트’, ‘스쿼즈 번트’처럼 각 어휘가 가리키는 의미가 세분화되어 정확하고 자세하다.

25 〈조건〉에서 1은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고, 2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며, 3은 해당 어휘가 2어절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휘는 야구 전문 용어이고,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2어절로 이루어진 ‘스쿼즈 번트’이다.

26 온라인 대화에서는 대화의 재미와 신선함을 추구하기 위해 줄임말과 새말, 유행어 등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한다.

오답 해설

- ① (다)는 사적인 소통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 ② 온라인 대화에서 표정, 동작 등은 그림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④ (다)는 친구와의 사적인 소통이므로 줄임말과 새말, 유행어 등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⑤ (다)는 의미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초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27 같은 분야의 전문가끼리는 전문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8 ‘드론’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서 새말이 생긴 경우이다. ‘갯평작’은 ‘god + 명작’을 합친 말로, ‘신이 만든 명작’이라는 의미이다. ‘명’과 ‘평’의 글자 모양의 유사성을 활용한 표현으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서 생긴 새말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 모두 새롭게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고 있으며, 외국어

를 사용한 새말이다.

29 ㉠은 외국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순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새말을 생성한 경우이다. (나)에 사용된 새말들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외국어를 모르면 새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순화가 필요하다.

30 (가)의 ‘통킵’은 ‘툼블러’라는 외국어를 순화한 말로 어근 ‘툼’과 어근 ‘킵’이 결합한 합성어다. (나)의 ‘잇 아이템’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합성어는 어근 ‘매력’과 어근 ‘상품’이 결합한 ‘매력상품’이다.

오답 해설

- ① 잇템: ‘잇’과 ‘아이템’을 합쳐서 줄인 말이다.
- ② 매력꾼: 접사 ‘-꾼’은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 주기 때문에 ‘매력꾼’은 물건에 해당하는 ‘잇 아이템’을 대체하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접사를 결합하였으므로 ‘통킵’의 단어 형성 방식(합성)과도 다르다.
- ④ 필수 아이템: ‘아이템’이라는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⑤ 꼭 사야 하는 상품: ‘잇 아이템’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31 ㉠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에 따라 메시지를 빠르게 보내려고 생겨난 줄임말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다)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화에 ‘ㅇㅋ, ㄴㄴ, 강추, 열공’과 같은 줄임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ㅠㅠ’는 줄임말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모양을 본떠 글자로 나타낸 것이다.

32 ‘볼매’는 ‘볼수록 매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줄인 말이다.

33 관용 표현 ‘가슴이 뛰다’는 ‘놀라거나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다.’의 의미로 ‘거짓말한 게 들릴까 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열정이 있어서 마음이 흥분되거나 설레다.’의 의미로 ‘더 이상 회사 생활에 가슴이 뛰지 않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가슴에 새기다: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
- ③ 가슴이 미어지다: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 차 견디기 힘들게 되다.
- ④ 가슴에 뚫을 바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
- ⑤ 가슴을 쓸어내리다: 곤란한 일이나 걱정 따위가 해결되어 마음을 놓다.

34 관용 표현 ‘귀에 거슬리다’는 ‘어떤 말의 내용이나 말투가 듣기에 좋지 않아 언짢은 기분이 들다.’의 의미로 ‘귀에 거슬리는 중간 소음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일수록 더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속도 없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나 정신이 없다. 또는 자존심이나 쫓대가 없다.
- ② 눈이 뒤집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집착하여 이성을 잃을 지경이 되다.
- ③ 입을 맞추다: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도록 조정하다.
- ④ 이를 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분을 참지 못하여 독한 마음을 먹고 버르다.

- 35 '강한 추위에 저절로 목이 움츠러들었다.'는 글자 그대로 척추 동물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잘록한 부분이 몹시 오그라져 들어가거나 작아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용 표현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발(이)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
 ③ 코가 납작해지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뚝 떨어지다.
 ④ 발(이) 묶이다: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
 ⑤ 목(이) 마르게: 몹시 애타게.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158~159쪽

01 '밥투정'은 '밥+투정', '밀반찬'은 '밀+반찬', '군소리'는 '군-+소리'로 분석된다. 여기서 '밥', '투정', '밀', '반찬', '소리'는 모두 어근으로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달리 '군-'은 접사로서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02 '새하얇다'는 접사 '새-'가 어근 '하얇-'에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이고, '새해'는 어근 '새'와 어근 '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03 (3개 중 2개 작성)

파생어	어근	접사
음식점	음식	-점
무농약	농약	무-
손님	손	-님

04 '누리꾼'은 어근 '누리'와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누리꾼'은 원래 '네티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누리꾼'은 '네티즌'이라는 외래어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순화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05 손녀와 같은 젊은 세대는 (다)와 같은 온라인 대화에서 '깜놀'과 같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일상에서도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대와 대화할 때는 이와 같은 어휘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풀어서 설명해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06 야구 경기 해설자는 야구 전문가이므로 야구 경기를 중계할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경기 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야구 경기 중계 방송은 주로 야구 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야구 전문 용어가 나와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다.

평가 요소 형태소의 종류 구별하기

- 01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밥투정'과 '밀반찬', '군소리'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근인 '밥', '투정', '밀', '반찬', '소리'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접사인 '군-'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채점 기준	배점
세 단어의 형태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형태소의 종류를 적절하게 구별한 경우	10점
두 단어의 형태소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형태소의 종류를 구별한 경우	6점
한 단어의 형태소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형태소의 종류를 구별한 경우	3점
2~3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파생어와 합성어의 형성 방식 분석하기

- 02 '새하얇다'의 '새-'는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새해'의 '새'는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이라는 의미의 어근(관형사)이다. 접사와 어근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면 파생어이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면 합성어이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단어의 형태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두 단어의 종류를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한 단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2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파생어의 형성 방식 파악하기

- 03 파생어는 반드시 접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보기>에서 접사가 결합된 단어는 접사 '-점'이 결합된 '음식점', 접사 '무-'가 결합된 '무농약', 접사 '-님'이 결합된 '손님'이 있다.

채점 기준	배점
(1), (2)를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6점
(1), (2) 중 1개지만 맞게 쓴 경우	3점

평가 요소 새말의 형성 방법과 생성 이유 이해하기

- 04 '누리꾼'은 '네티즌'이라는 외래어를 순화하기 위해 만든 새말이다. '세상'이라는 의미의 고유어 '누리'에 특정 행위를 즐겨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사 ‘-꾼’을 붙여 파생어를 만들었다.

채점 기준	배점
형태소 분석과 단어의 종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누리꾼’에 대응하는 어휘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혔으며, 새말의 생성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두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2~3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세대와 매체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 이해하기

- 05 젊은 세대는 매체 사용 빈도가 높고, 이에 따른 어휘의 변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기 전에 대화 상대와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깜놀’의 사용 이유와 원활한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각각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깜놀’의 사용 이유와 원활한 대화를 위한 노력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각각 한 문장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분야에 따른 어휘 사용 양상 파악하기

- 06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의미가 구체적·세부적이고, 대개는 일반어에 대응하는 어휘가 없다. (나)에서 야구 경기 해설자들은 야구 경기를 중계하면서 전문어를 사용하여 경기 상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야구 경기 중계 방송을 보는 시청자인 형은 야구 전문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야구 경기 해설자의 입장과 야구 경기 시청자의 입장에서 전문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야구 경기 해설자의 입장 또는 야구 경기 시청자의 입장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3 숨어 있는 의미, 근거 있는 주장

(1) 추론하며 읽기

본문 162~163쪽

개념 확인

1 추론 2 ④ 3 ② 4 ○ 5 × 6 ④ 7 ①

확인 문제

본문 166~171쪽

1 ⑤ 2 글쓴이는 ‘버려진 옷’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버려진 옷을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였는데, ‘주범’은 ‘어떤 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3 ⑤ 4 ⑤ 5 ④ 6 ‘떠넘겨진다’,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7 ④ 8 ② 9 ④ 10 ② 11 옷과 같은 물건을 살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 이 글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우는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추측하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서술형] 글쓴이는 버려진 옷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하였는데, ‘주범’은 ‘어떤 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을 뜻한다. 따라서 ‘주범’이라는 단어를 통해 글쓴이가 ‘버려진 옷’에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글쓴이는 천연 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연 섬유인 면의 원료가 되는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방대한 목화밭에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토양과 공기가 오염되고 매년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농약 중독으로 죽는다고 하였다. 즉 ㉠은 천연 섬유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6~9에서는 옷의 생산과 소각, 폐기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수질 오염이 일어나며, 악취와 유독한 화학 성분이 발생하는 등 각종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 8에서 글쓴이는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이 엄청나다고 서술한 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즉 ㉡에서는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쓰는 물의 양과 4인 가족이 5~6일 동안 생활할 때 쓰는 물의 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6 [서술형] ㉠에 쓰인 ‘떠넘겨진다’는 할 일이나 책임이 남에게 미루어진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어떤 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단어와 어구를 통해 글쓴이가 우리가 버린 옷이 개발 도상국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7 6~9에서는 의류 산업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 즉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의류 산업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8 11에서 ‘유기농 면으로 만든 옷은 비싼 편이어서 소비자가 계속해서 구매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하였으므로 ㉢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9 10에서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알려지자 의류 회사들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친환경 섬유, 재활용 섬유로 만든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회사들은 의류 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섬유, 재활용 섬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0 10~12의 소제목은 ‘친환경이 해결책?’이고, 내용은 의류 회사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12에 담긴 글쓴이의 주장은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가 의류 산업이 만들어 내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10에서 의류 회사들은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알려지자,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을 내놓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③ 11에서 친환경 섬유는 원료를 제외하고 옷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옷과 같아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 ④ 12에서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은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 ⑤ 12에서 글쓴이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 내는 필터를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탁기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11 [서술형] 13에서 글쓴이는 ‘옷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살 때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옷과 같은 물건을 살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면서 ㉣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1 ㉣ 2 ㉣ 3 ㉢ 4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데’와 ‘1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글쓴이가 의류 폐기물 양이 많은 것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6 ㉣

1 ㉡에서는 ‘옷을 만들 때는 수질 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옷을 만드는 섬유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앞부분에서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섬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옷을 만들 때는 수질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제목 중 ‘옷과 환경의 관계’와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글이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친환경이 해결책?’과 ‘그렇다면 해결책은?’을 통해 옷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임을 추론할 수 있다.

3 ㉠은 ‘천연’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천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에 관한 ㉢과 같은 사례를 배경지식으로 떠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② ‘천연’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일 뿐이다.
- ④, ⑤ ‘천연’이라는 말이 들어간 제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에 담긴 글쓴이의 부정적 관점과 거리가 멀다.

4 [서술형] ‘의류 폐기물이 쏟아지는데’에서 글쓴이가 의류 폐기물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1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재활용 비율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의류 폐기물 양에 비해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 [서술형] <보기>는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글쓴이는 옷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에 해당하는 과도한 옷의 생산, 소비, 폐기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글을 추론하며 읽을 때는 글에 나타난 정보나 배경지식 등을 단서로 추론을 해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는 것은 추론하며 읽기의 올바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1 ③ 2 ③ 3 ⑤ 4 ① 비속어, 은어, 막말, 욕설
① 대화 예절

- 1 이 기사의 표제는 기사문에서 다룰 중심 화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기사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한 부분은 '전문'인데, 이 기사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② 기사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는 부분은 '본문'이다.
④ 기사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사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부분은 해설이다.
⑤ 이 기사의 표제는 기사문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임을 알려 줄 뿐, 기사를 통해 주장하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 2 이 기사의 소재는 편의점 도시락이다. 글쓴이는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면서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에서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이 광고의 표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변형한 '가는 특이 고와야 오는 특도 곱지'이고, 본문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 예절을 지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 문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다.
- 4 이 광고에 제시된 단어 중,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비속어, 은어, 막말, 욕설' 등이다. 광고 제작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화 예절을 지키자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 1 ② 2 ⑤

- 1 ①과 ②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 해설

- ① '어떤 일에 대하여 배려하여 마련함.'의 뜻으로 쓰였다.
②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의 뜻으로 쓰였다.
- 2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소비'이다. '소비'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앴.'이라는 뜻과 경

제 용어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소단원 핵심 문제

- 01 ④ 02 ② 03 ① 04 옷을 만드는 데 지나치게 많은 물이 쓰인다는 것 / 옷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물을 쓰는지 05 ⑤ 06 ①에는 우리가 버린 옷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버려진 옷이 '개발 도상국으로 떠넘겨진다.'라는 표현과 '의류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단서로 이러한 관점을 추론할 수 있다. 07 ② 08 ② 09 ④ 10 천연 섬유를 만들 때 농약과 살충제를 사용하여 토양과 공기가 오염되고,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 11 ① 12 ③ 13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4 ④

- 01 제목과 글쓴이에 관한 정보에서 우리가 버린 옷이 환경과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재목을 통해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내용의 글임을 추론할 수 있다.

- 02 (나)에서 천연 섬유인 면의 원료는 목화인데 이 목화 생산을 위해 매년 많은 양의 농약과 살충제가 쓰이면서 토양과 공기가 오염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연 섬유인 면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버려진 옷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였다.
③ (다)에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폴리에스테르는 합성 섬유 중 하나이므로,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옷도 재활용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각종 염료와 표백제 같은 화학 물질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옷을 생산할 때도, 소각할 때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퍼센트를 의류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 03 ④는 우리가 입을 옷을 만드는 원료가 섬유라는 사실과, 섬유의 종류에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을 뿐, ①에서 제기한 옷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⑥는 천연 섬유인 면의 원료가 되는 목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약으로 인해 토양과 공기가 오염되고, 사람들이 농약 중독으로 죽는다는 내용으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 있다.

- ③ ㉔는 합성 섬유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다는 내용으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 있다.
- ④ ㉔는 옷을 생산할 때도, 소각할 때도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내용으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 있다.
- ⑤ ㉔는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각종 염료와 표백제 같은 화학 물질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나타나 있다.

04 [서술형] 글쓴이는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과 우리나라 4인 가족이 5~6일 동안 쓰는 물의 양을 비교하여 옷을 만드는 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05 (마)에서 글쓴이는 옷으로 인한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의류 쓰레기가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된 후 매립장으로 보내지거나 강에 버려지고 그러한 옷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독한 화학 성분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나)에서는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의류 회사들이 그 해결책으로 친환경 섬유, 재활용 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정말 친환경적일까?'라고 하여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라)에서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을 설명한 후,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 내는 필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한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6 [서술형] ㉔에 드러난 문제 상황은 우리가 버린 옷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서술하면서 글쓴이는 '개발 도상국으로 떠넘겨진다', '의류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문제 상황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07 ㉔에 생략된 내용은 재활용 섬유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재활용 섬유는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를 보여 주는 배경지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㉔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로봇 생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㉔와 관련된 배경지식으로 볼 수 없다.

08 이 글은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질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수필, ③은 건의문, ④는 보고서, ⑤는 연설문의 성격에 해당한다.

09 '친환경이 해결책?'이라는 소제목은 친환경 섬유를 사용하여 만드는 옷이 과연 옷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로 만든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라), (마), (바)의 소제목으로 적절하다.

10 [서술형] ㉔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 (다)에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천연 섬유를 만들 때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여 토양과 공기가 오염된다는 내용이, (다)에는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11 글쓴이는 (가)에서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질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나)~(바)에서 옷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설명한 후, (사)에서 옷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옷의 과도한 생산, 소비, 폐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옷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부정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이 글에 편의점 도시락 이용자와의 인터뷰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앞부분에 제시된 편의점 도시락 사진을 통해 이 기사가 편의점 도시락에 관한 내용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②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여 인기 있는 도시락의 영양 성분, 편의점 도시락과 함께 먹는 식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질문 형식의 표제를 사용하여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라는 기사의 중심 화제를 압축하여 제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 ⑤ 편의점 도시락 섭취 시 같이 먹는 식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원 그래프 형태의 도표로 제시하여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3 [서술형] 글쓴이는 표제를 통해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진 후, 그것에 대한 답으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영양 성분 보충 방법도 고려하며 섭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14 이 광고는 가시 돌힌 선인장을 말풍선 모양으로 제시한 사진과 '가는 독이 고와야 오는 독도 곱~지'라는 표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대화 예절은 당신의 인격입니다!'라는 본문의 문구를 통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 예절을 지키며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의도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장을 담은 글 쓰기

개념 확인 **복록**

본문 188~189쪽

- 1 설득 2 × 3 ○ 4 ○ 5 ④ 6 ④ 7 ②
8 ④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92~200쪽

- 1 ① 2 ④ 3 ③ 4 ① 5 ③ 6 ③ 7 ⑤
8 ③ 9 수원의 ○○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급식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10 ②
11 자료 4, 자료 4는 멸종 위기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를 소개
하는 내용이라 텃밭을 가꾸자는 주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12 ③ 13 ④ 14 (1) 우리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여 학교 텃밭을 함께 가꾸자. (2) 학교 텃밭 가꾸기는
즐겁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되고,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며,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15 ⑤ 16 주장이 명료하
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주장이 뚜렷하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객관적인 문장이 아니라, 글쓴이 개
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 ㉡, ㉢, ㉤, ㉥

- 1 이 만화에는 아름이가 글을 쓰게 된 상황과 과정이 나타나 있
다. 아름이는 학교 게시판에서 텃밭 가꾸기에 관심 있는 학생
이나 동아리는 신청하라는 알림을 보고, 자신이 속한 '지구 사
랑' 동아리 부원들에게 텃밭 가꾸기 신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학교 텃밭을 함께 가꾸자고 동아리 부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텃밭 가꾸기의 필요성을 담은 글을 쓰게 되었다.
- 2 아름이가 글을 쓰는 의도는 동아리 부원들을 설득하여 함께
텃밭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 3 아름이는 설득을 목적으로 '우리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여 학교 텃밭을 함께 가꾸자.'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쓰
고자 한다.
- 4 아름이는 학교 게시판의 알림을 보고 자신이 속한 '지구 사랑'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학
교 텃밭을 가꾸고자 한다.
- 5 |자료 1|은 무궁해 채소와 꽃들을 가꾸고 부추와 상추를 직접
수확하며 농촌 체험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학교 텃밭
이 생태 교육의 장임을 보여 주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 자료이
다. 학교 텃밭을 가꿀 때 유의할 점은 다루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김○○와 김□□라는 학생과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② 출처에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라고 나와 있으며, 이미지 자료를 통해 텔
레비전 뉴스임을 알 수 있다.
④ 텔레비전 뉴스 자료이므로 학교 텃밭을 가꾸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청각(동
영상)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목과 기자의 말에서 학교 텃밭이 생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자료 2|에는 텃밭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채소 선호도가 높
아져서 과일과 호박, 완두콩 등 채소를 간식으로 즐기게 되었
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뿐, 학교 텃밭에서 기를 수 있는 채소
의 종류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출처인 '농촌진흥청 누리집'으로 보아 인터넷 매체에서 찾은 자료이다.
② 학교 텃밭을 가꾸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텃밭 가꾸기의 필요성'이라는 아름이가 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
한 자료이다.
⑤ 학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채소 선호도가 높아지고 영양 섭취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7 |자료 3|에서는 실내 정원, 학교 텃밭을 이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 중, 학생의 집중력 향상,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교육적 효과와 스트레스와 공격성 감소 등의 정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8 |자료 4|는 국립생태원에서 식물의 중요성과 멸종 원인을 생
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멸종 위기 식물에 관한 전시가 개최된다
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 9 [서술형] |자료 5|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급식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신문 기사이
다. '수원의 ○○ 중학교 학생들이(누가) 학교 텃밭에서(어디
에서) 농작물을(무엇을) 재배하여 급식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 10 아름이가 찾은 자료 중 국립생태원의 멸종 위기 식물 전시에
대한 정보는 학교 텃밭 가꾸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11 [서술형] |자료 4|는 멸종 위기 식물을 주제로 한 전시를 소개
하는 내용이므로 학교 텃밭을 가꾸자는 주장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 12 아름이가 작성한 개요 중 본론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정리되어 있다. 아름이가 글을 쓰게 된 상황은 개요에 나타나
있지 않다.

- 13 근거는 아름이가 작성한 개요의 본론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에 텃밭을 가꿀 때 다양한 식물을 기르으로써 멸종 위기 식물
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과 ③은 본론의 근거 2에, ②와 ⑤는 본론의 근거 1에 해당한다.

14 [서술형] 이 글의 주장은 1과 5에서 드러나는데,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여 학교 텃밭을 함께 가꾸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근거는 2, 3, 4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 텃밭 가꾸기는 즐겁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되고,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며,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5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한다. 개인의 경험은 주관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6 [서술형]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주장은 의문문의 형태로 끝나 주장이 명료하게 표현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장이 뚜렷하게 강조되도록 바꾼 것이다.

17 [서술형] 제시된 문장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라는 부분에 글쓴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주장하는 글은 표현의 적절성 측면에서 명료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주관적 생각이 드러난 부분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8 주장하는 글 쓰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장을 정하고 (㉠),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 다음(㉡), 주요 내용을 담은 개요를 작성한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한 후(㉣), 글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가하며 고쳐 쓰는 단계로 마무리한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01~203쪽

1 ③ 2 ⑤ 3 ⑤ 4 ③

1 ‘교내 급식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장이 아니므로 주장하는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의 주제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주장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뜻하므로, ①, ②, ④, ⑤와 같이 개인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가 적절하다.

2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예상 독자, 글의 목적과 주제, 분량, 이용 매체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인 ‘근거 마련하기’에서 이루어진다.

3 주장하는 글에 사용하는 근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자료여야 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떠올린 생각을 마인드

맵으로 그려 보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주장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문장 표현이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명료해야 한다. 문장의 참신성은 일반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나 문학 작품에서 갖춰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05쪽

1 ㉠ 지속 ㉡ 직면 2 ㉠

1 ‘지속’은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이라는 뜻을 지니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직면’은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이라는 뜻을 지니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2 ‘객관적’은 개인의 주관이 아닌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모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08~209쪽

01 ② 02 ④ 03 텃밭 가꾸기는 신체 활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도와주며,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교육적 효과와 스트레스나 공격성 감소 등의 정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04 ⑤ 05 ② 06 ④ 07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학교 텃밭을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가꾸자고 제안합니다.

01 (가)~(마)는 주장하는 글 쓰기의 과정 중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한 내용이다.

02 (라)는 멸종 위기 식물 전시를 안내하는 자료로 텃밭 가꾸기와 관련이 없다. 텃밭은 채소 등 대부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기르는 곳이므로, 텃밭 가꾸기와 멸종 위기 식물은 관련성이 떨어진다.

오답 해설

① 텃밭 가꾸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텔레비전 뉴스로 텃밭 가꾸기가 즐거운 활동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이다.

② 텃밭 가꾸기가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자료로 텃밭을 가꾸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쓸 수 있다.

- ③ 텃밭 가꾸기를 통해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한 농업 연구사의 글로 텃밭을 가꾸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근거로 쓸 수 있다.
- ⑤ 텃밭 활동의 결과를 학교의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감자는 급식실로 전달해 전교생이 시식할 예정이다.)이 나타나 있는 신문 기사로 텃밭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이다.

03 [서술형] (나)와 (다)에는 텃밭 가꾸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나)에서는 텃밭 가꾸기가 신체 활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다)에서는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의 교육적 효과와 스트레스나 공격성 감소 등의 정서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04 이 글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나)에는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을 취재한 텔레비전 뉴스, (다)에서는 텃밭 가꾸기가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자료, (라)에서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교육적,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한 농업 연구사의 글을 활용하여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으로,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의 형식에 맞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 ③ (가)에서 글쓴이는 큰아버지 댁에 갔다가 방울토마토를 따 본 경험을 이야기하며 텃밭 가꾸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의 서론인 (가)에서 '농촌에 방문해서 채소나 과일을 따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져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05 근거 1의 내용이 제시된 (나)를 보면, 학생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학교 친구들과 결과를 나누며 보람을 느꼈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㉓는 (나)에, ㉔와 ㉕는 (다)에, ㉖는 (라)에 반영되어 있다.

06 ㉑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와 같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㉑에 대해 명료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다)의 중심 내용은 텃밭 가꾸기가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므로 ㉑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다.
- ② 단어 표기나 띄어쓰기 등 모두 맞춤법을 지키고 있다.
- ③ 텃밭 가꾸기를 통해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텃밭 가꾸기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동아리 부원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함께 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다.
- ⑤ ㉑에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07 [서술형] 이 글의 주장은 (가)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 사랑'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마)를 이러한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18~223쪽

- 01** ④ **02** ⑤ **03** ⑤ **04**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질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하자. **05** ④ **06** ④ **07** ⑤ **08** ①
- 09** ⑤ **10**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영양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1** ⑤ **12** ⑤ **13** 가시 돌힌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 **14** ④ **15**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대화 예절을 지키는 언어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 **16** ⑤ **17** ④ **18** ④ **19** 마지막 문장을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학교 텃밭을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가꾸자고 제안합니다.'로 고쳐 쓴다. **20** ④ **21** ④
- 22** 우리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자고 제안합니다.

0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 ②는 수필, ③은 문학 작품, ⑤는 관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02 (다)에서 친환경 섬유를 대표하는 유기농 면은 '원료를 제외하고 옷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옷과 같아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기농 면을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섬유의 종류에는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가 있다. 대표적인 천연 섬유는 면이다. ~합성 섬유 중 하나인 폴리에스테르의 경우~'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각종 염료와 표백제 같은 화학 물질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정작 구입한 옷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는지, 옷이 버려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면의 원료는 목화인데, 이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 농약의 10퍼센트, 살충제의 25퍼센트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방대한 목화밭에 농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토양과 공기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나)는 옷을 만드는 과정과 옷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오염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다)는 의류 산업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 역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ㄴ은 (나)의 "천연"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와 관련된 배경지식, ㄷ은 (나)의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각종 염료와 표백제 같은 화학 물질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와 관련된 배경지식, ㄹ은 (다)의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동물의 몸속에 쌓이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든다.'와

관련된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은 (나)와 (다)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배경지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글쓴이의 주장은 결론인 (라)에 드러난다. 글쓴이는 옷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05 ㉡은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인 약 7천 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 옷을 만들 때와 생활할 때 쓰는 물의 양을 비교한 것이다. 생활용수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06 ㉢에서 의류 회사들은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알려지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섬유로 만든 제품을 생산해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류 회사들은 의류 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7 이 글은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문으로, 주로 이와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끝부분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 영양 성분 보충 방법도 고려하며 먹어야 한다.’라는 글쓴이의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08 이 글은 3, 4문단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 성분, 편의점 도시락 섭취 시 같이 먹는 식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사진과 도표 등의 매체 자료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 참신함이나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 ③ 글쓴이의 일상 속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④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⑤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09 ㉠ ‘나트륨은 제품당 약 1100~1720밀리그램(mg)을 섭취하게 되어 있어,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55~86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때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에 편의점 도시락의 영양 성분 중 나트륨 비중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 ④ ‘이런 음식(컵라면이나 탄산음료) 대신 바나나나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에 편

의점 도시락과 같이 먹는 식품 중 컵라면이나 탄산음료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오답 해설

- ㉡, ㉢ 글쓴이는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높아지는 현상을 제시한 후, 여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도시락의 수요 증가(㉡)나 다양한 도시락 상품 출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서술형] 글쓴이는 3~6문단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영양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니 영양 성분 보충 방법도 고려하며 먹어야 한다고 하였다.

11 제시된 자료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대화 예절과 관련한 공익 광고이다. 사실에 기반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기사문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특이 고와야 오는 특이 곱~지’가 표제에 해당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당신의 인격입니다!’가 본문에 해당한다.
- ② 가시 돌힌 선인장을 말풍선 모양으로 만든 사진이 함께 사용되었다.
- ③ 제시된 자료는 ‘광고’이다.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 또는 그 표현물.’을 뜻한다.
- ④ 이 광고는 보는 사람에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 예절을 지키고 설득하고 있다.

12 이 광고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비속어, 은어, 막말, 욕설 등을 서슴없이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화 예절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언어문화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서술형] 이 광고 속 사진은 가시 돌힌 선인장이 말풍선 모양을 하고 있다. 본문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비속어, 은어, 막말, 욕설 등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로 보아 이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담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말풍선 모양을 흉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을 변형한 것인데, 이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광고는 속담을 활용하여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서로 대화 예절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
- ②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된다는 말.
- ⑤ 마땅히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말.

15 [서술형] ㉠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대화 예절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보여 준다는 의미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광고 제작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즉 광고 제작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대화 예절을 지키는 언어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16 (가)의 대화에서 텃밭 체험을 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려는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동아리 부원 3은 글을 써서 동아리 게시판에 올리자고 하였다.
- ②, ③ 동아리 부원 2의 말을 통해 동아리 이름이 '지구 사랑'이고, 쓸 글이 다른 부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름이의 말을 통해 학교 텃밭 가꾸기에 신청하자는 내용의 글을 써서 동아리 부원들에게 제안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7 ㄱ은 (나)의 1문단에서, ㄴ은 (나)의 3문단에서, ㄷ은 (나)의 2문단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그러나 ㄹ은 (나)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며, 멸종 위기 식물 전시에 대한 정보는 동아리 부원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자고 제안하는 이 글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

18 ㉡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는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긴 부분이므로, 이를 명료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고쳐 써야 한다.

19 [서술형] (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문단은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학교 텃밭을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가꾸어 보면 어떨까요?'라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문문으로는 주장이 명료하고 뚜렷하게 강조되지 못한다. 따라서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학교 텃밭을 우리 동아리 부원들이 함께 가꾸자고 제안합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20 (가)~(다)와 (라)~(마)는 모두 객관적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에 해당한다.

21 (가)에서는 옷이 만들어지고 버려질 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는 옷이 일으키는 환경 오염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였다. (다)에서는 옷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옷의 과도한 생산, 소비, 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 회사 관계자들에게 옷의 생산을 줄이자고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나)의 첫째 문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나)의 둘째 문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22 [서술형] (라)~(마)의 주장은 서론에 해당하는 (라)에 글쓴이가 속한 “지구 사랑”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를 신청하자고 제안합니다.”에 제시되어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24~225쪽

- 01** 우리가 입고 버린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 02** ㉠ (원료를 제외하고 옷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옷과 같아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아 있다. ㉡ 세탁할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
- 03** (1) 글쓴이는 옷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다. (2) 글쓴이는 옷과 같은 물건을 소비할 때 환경을 생각하자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 04** ㉢ 즐겁게 자연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텃밭 가꾸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 텃밭 가꾸기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 텃밭 가꾸기는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
- 05** 텃밭 가꾸기를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므로 운동 효과가 생겨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06** 주장의 명료성 면에서 ㉠은 의문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서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평가 요소 글의 내용 추론하기

01 <보기>에 제시된 ‘대체 옷이 환경과 무슨 상관일까?’라는 질문과 (가), (나)의 내용을 통해 본문에서 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의 내용을 통해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서술한 경우	10점
옷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02 (나)의 2문단에서 친환경 섬유는 원료를 제외하고 옷을 만드는 방식이 다른 옷과 같아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아 있

다고 하였다. 3문단에서 재활용 섬유의 경우 세탁할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 추론하기

- 03** (다)에서 글쓴이는 옷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옷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데 있다고 하였으므로,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옷의 과도한 생산, 소비, 폐기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옷과 같은 물건을 살 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1)과 (2)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주장하는 글의 개요표 작성하기

- 04** 이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는 서론, (나)~(라)는 본론, (마)는 결론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본론에 제시되어 있다. (나)의 첫 문장에서 근거 1을, (다)의 첫 문장에서 근거 2를, (라)의 첫 문장에서 근거 3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에는 개요의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뒷받 가꾸기의 보람’을 추가할 수도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 ㉡, ㉢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7점
㉠, ㉡, ㉢ 중 한 개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표현하기

- 05** ㉠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으므로 명료하고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뒷받 가꾸기가 어떤 점에서 운동 효과가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쳐 쓴 경우	10점
주관적 생각이 담긴 표현만 삭제하고 운동 효과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평가 기준에 따라 고쳐 쓰기

- 06** <보기>는 ㉡과 비교할 때 내용은 동일하나 표현이 다르다. ‘함께 가꾸어 보면 어떨까요?’라고 의문문 형태로 조심스럽게 표현한 것을 ‘함께 가꾸자고 제안합니다.’라고 주장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주장의 명료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주장이 뚜렷하게 강조하는 문장으로 고쳐 썼다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평가 항목과 ㉡을 <보기>와 같이 고친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평가 항목은 적절하지 않으나, ㉡을 <보기>와 같이 고친 까닭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평가 항목은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을 <보기>와 같이 고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4 연결하는 매체, 해결하는 토의

(1) 슬기로운 매체 생활

본문 228~229쪽

개념 확인 **국문**

- 1 대중매체 2 누구나 3 컴퓨터 4 ④ 5 ③
6 크고, 작다 7 일방향 8 ④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32~241쪽

- 1 정보 통신 기술 발달 2 ⑤ 3 ⑤ 4 ② 5 ③
6 ③ 7 쌍방향 8 ⑤ 9 ②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⑤ 17 ①
18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19 ⑤

- 1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를 정리했을 때 빈칸에는 '정보 통신 기술 발달'이 들어갈 수 있다.
- 2 드라마 속에서 말하는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 구독자 수를 올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콘텐츠를 꾸준히 생산하여 주기적으로 올리라는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 3 강연자는 '지금부터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비교해 봅시다.'라고 하며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다룰 것임을 안내하고 있다.
- 4 강연자는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 누리집에 여섯 가지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①), 적극적인 참여(④)를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누리집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올리면서 강연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⑤),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강연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③). 그러나 강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강연자가 강연 중에 누리집을 제시한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5 개인 인터넷 방송은 음악, 영화, 요리, 운동 등 다양한 주제의 취미와 관심사를 다루고(ㄱ),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방송 내용을 만들어 빠르게 인터넷에 올린다는(ㄷ) 특성을 가진다.

오답 해설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ㄱ),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사, 회사 같은 조직이나 집단에서 만들며(ㄷ), 방송 제작 후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전달된다는(ㄴ) 특징을 가진다.

- 6 구독자 수에 따라 수익(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오답 해설

- ①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한다.
- ② 대중매체는 방송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내용에 관한 책임이 매우 크다.
- ④ 대중매체는 일반 국민이 내는 수신료, 기업이 내는 광고비,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 ⑤ 대중매체의 시청자나 청취자는 게시판이나 시청자 위원회 등을 통해 방송국에 의견을 전달한다.

- 7 대중매체는 방송국 등에서 주로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는 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가 비교적 빠르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 8 강연자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가사의 노래를 인용하여 과거에는 일반인이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 9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매체에 비해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비교적 쉽게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다. 강연자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즉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특징과 관련된다.

오답 해설

- ①, ③, ④, ⑤ 대중매체는 방송을 제작하는 부서나 단체가 체계적으로 구성된 방송국 등과 같은 언론사가 주로 만들고, 출연자, 연출가, 기술진 등 방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

- 10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인과 시청자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시청자 간에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⑤ 시청자가 방송을 보면서 댓글을 써서 올릴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개별 방송인에게 광고 수익을 나누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 정부의 지원금, 방송국 자체 예산, 일반 국민이 내는 수신료, 개별 회사가 내는 광고비는 모두 대중매체의 수익원에 해당한다.

- 12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내보내는 것은 대중매체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개인 인터넷 방송인들은 기존 대중매체와 차별화된 내용, 즉 이용자들이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것,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에게 빠

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다룬다.

- ③, ⑤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자들은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내용, 즉 새로운 정보나 기술, 개인의 의견을 빠르게 전달한다.

- 13 강연자는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생겨서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이 강연에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강연자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③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대중매체가 개인 인터넷 방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대중매체가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4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람직한 매체 이용 방법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15 강연자는 매체의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판단해 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은 이 강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⑤ 슬기롭게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판단하며, 매체의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16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한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예능과 드라마처럼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제작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인과 시청자들이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 17 대중매체는 대중, 즉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8 [서술형]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므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심의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다.

- 19 방송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현한 내용은 부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개인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위험하고 해로운 내용,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차별과 혐오를 표현한 내용,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내용 등이 해당한다.

적용+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42~243쪽

1 ③ 2 ② 3 ④ 4 ②

- 1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정확하고 확인된 내용인가?’,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가?’, ‘폭력적이고 해로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인기 있는 유명인이 출연했는지 여부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2 방송에서 들은 정보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검증하는 태도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바람직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오답 해설

- ① 개인 인터넷 방송인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믿거나 편파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③ 연예인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정보나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

- 3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혼자 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의 생각이 주로 반영된다. 어떤 방송이든 모든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 4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된다는 내용은 이 대화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특정 주제의 방송밖에 안 보는 것은, 다른 방송은 재미가 없어서 연예인 정보를 소개하는 방송만 본다는 ‘아름’의 문제점이다.
③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은, 시간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보고, 방송을 계속 보다가 해야 할 일을 못 한 적도 있으며, 방송 시청 시간을 줄이자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된다고 한 ‘나라’의 문제점이다.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좋아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말은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 ‘다운’의 문제점이다.
⑤ 제공받은 제품임을 모르고 소개 방송을 보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45쪽

1 수익, 영향력 2 ①

- 1 개인 인터넷 방송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 또한 구독자나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개인 인터넷 방송인은 매체의 영향력을 이해하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 2 광고는 정보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그중 상업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광고이고, 공익 광고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이다.

- 01 ③ 02 ③ 03 개인 인터넷 방송은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04 ② 05 ⑤ 06 ① 07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01 (라)에서 강연자가 '대중매체는 방송국 등 언론사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③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가사의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보는 텔레비전에 등장한다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었지요.'라고 하였다. 강연자는 유행했던 노래를 통해 과거에는 일반인이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주로 일반 국민이 내는 수신료, 개별 회사가 내는 광고비,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대중매체'라고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다)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개별 방송인에게 광고 수익을 나누어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에서 '각 매체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슬기로운 매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라고 한 내용을 통해 매체를 이용할 때에는 매체의 특성을 알고 매체의 내용을 평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02 (나)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인과 시청자 간의 소통이 자유롭고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짧은 방송 시간에도 바로 여러 댓글이 달'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영상을 올린다는 ③은 방송인과 시청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나)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② (나)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텔레비전은 정해진 편성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신문이 신문의 목적에 따라 편집국에서 선정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중매체의 일방적 소통에 해당한다.
④ (나)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출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대화창에서 시청자의 질문을 받아 즉각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시청자가 올린 의견을 보고 다른 시청자가 이어서 댓글을 올리는 등 시청자들 간에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라고 하였다. 개인 인터넷 방송의 방송 내용에 대한 찬성 댓글 아래 반대 댓글이 활발하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다.

03 [서술형] (다)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개별 방송인에게 광고 수익을 나누어 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때 방송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이 발생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개인 인터넷 방송의 방송인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많아져야 하므로 방송의 처음과 중간, 끝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것이다.

04 (라)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대중매체로 방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 (라)에서 '대중매체는 방송국 등 언론사가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냅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언론사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방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라)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 제작자들은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전달합니다.'라고 한 내용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동호인을 위한 방송으로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라)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별적이고, 이용자와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05 (바)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관련 기관의 점검과 통제를 받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감독하는 기구가 몇몇 개인 인터넷 방송인에게 사전 경고를 한다는 ⑤는 (바)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바)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역할을 맡은 기관이나 위원회를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라디오 프로그램의 비속어 방송에 대해 방송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다.
② (바)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문제 있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비속어와 욕설이 그대로 방송되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다.
③, ④ (바)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은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폭력성과 선정성,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드라마 제작진이 방영 전에 폭력적인 장면을 점검하여 다른 장면으로 교체하였거나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특정 상품이 노출되는 장면을 방송 전에 수정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다.

06 (가)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누구든 만들 수 있다고 하였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휴대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방송을 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즉시'), 방송국에서 출연자, 연출가, 기술진 등 여러 전문가가 만드는 대중매체와 달리 개인이 혼자 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쉽게')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누구나, 쉽게, 즉시'가 적절하다.

07 [서술형]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매체가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폭력성과 선정성,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절차를 만든 이유는, 대중매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므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2) 토의로 문제 해결하기

개념 확인 **국립**

본문 250~251쪽

1 토의 2 의견 3 청중 4 ④ 5 ⑤ 6 장점,
충돌 7 × 8 ○ 9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54~261쪽

1 ④ 2 ④ 3 ② 4 ④ 5 ③ 6 비용이 부담
스럽지 않은가? 7 ④ 8 ① 9 ⑤ 10 ⑤
11 ③ 12 ④ 13 ② 14 ④ 15 ④

- 1 청중과의 질의응답하기는 모두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모두 대표끼리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진행된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역할 분담하기, 토의 절차 정하기, 토의 주제 정하기, 토의에서 나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정하기는 모두 토의 준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

- 2 “1학년을 마무리하며 친구들과 함께한 추억을 남길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라고 하면서 토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현서의 말에서 ‘우리 반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어떻게(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라는 토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찬반으로 입장이 나뉘는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다.
③, ⑤ 현서의 말과 관련이 없다.

- 3 나운이네 모두는 토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념품 중 저렴한 볼펜, 물병 등을 찾았고(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조사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기념 동영상에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㉕).

- 4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이다. 반론이 나올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토의의 판단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5 ①은 토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사회자는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며, 토의 순서와 토의 발표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였다. 토의 내용 요약은 토의 발표자들의 발언 후에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오늘의 토의 주제는 ‘우리 반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입니다.”라고 하여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② “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모두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검토한 뒤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에 답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토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④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교 토의의 진행을 맡은 박현서입니다.”라고 하여 인사와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⑤ “윤정은, 임진호, 최나운 학생의 순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토의 발표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6 임진호는 “적은 돈이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돈을 내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돈을 걷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부담이 더…….”라고 하여 물병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 7 최나운은 “완성된 동영상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공유하면 되니까 학년이 끝나기 전에 마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동영상 공유 방법과 동영상 제작 소요 시간에 대해 말했을 뿐 동영상 공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윤정은은 적은 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임진호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② 윤정은은 “면담의 경우,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면담 촬영 시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③ 최나운은 “면담 질문 두세 가지를 정해 미리 알려 주고, 그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을 각자 촬영한 뒤 그것을 모아 편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면담 촬영 시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⑤ 윤정은은 “시 낭송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서 시 낭송의 부담감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 8 “과연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는 “시 낭송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태도로 토의 예절에 어긋난다.

⑤ ①의 태도에 대해 사회자가 “토의에 적절하지 않은 태도가 보여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정과 말투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주의를 주고 있다.

- 9 ①에서 이찬영은 “그런데 이 방법은 각각의 친구들 말고 모두가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하며 동영상 내용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④).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①에서 이찬영은 “동영상 제작에 관해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토의의 청중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③ ①에서 이찬영은 “추억을 떠올리기에 좋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 낭송이나 면담을 담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라고 하며 동영상 제작의 장점을 요약정리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10 서은우는 “면담과 시 낭송을 모두 동영상에 담을 수 있고, 현장 체험 학습과 축제 때 활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단체 사진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동영상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모두 대표들은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되면 추억도 그만큼 다채롭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긍하고 있다. 즉 서은우는 토의자들이 모두 수긍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동영상을 제작하지는 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청중(이찬영)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모두 대표들의 토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았다.
- ③, ④ 다른 청중(이찬영)이 제기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토의의 마무리에서 사회자는 토의 결과 정리, 추가 의견 유무 확인, 다음 토의 주제 안내, 토의 종료 선언 등을 한다. 반대 의견 제시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시 낭송, 면담, 행사 사진 등을 다채롭게 담은 기념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에 토의 결과 정리가 나타나 있다.
- ②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에 토의 종료 선언이 나타나 있다.
- ④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에 추가 의견 유무 확인이 나타나 있다.
- ⑤ “다음 토의에서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 분담과 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다음 토의 주제 안내가 나타나 있다.

12 윤정은은 물병을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과 문구를 넣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13 ‘면담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자.’라는 의견에 대해 ‘촬영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검토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4 청중인 이찬영은 시 낭송이나 면담 동영상만으로는 모두가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①). 이에 최나운, 윤정은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고 더 다양한 내용을 동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동영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였다(②). 서은우는 면담과 시 낭송을 모두 동영상에 담고, 현장 체험 학습과 축제 때 활동한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단체 사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동영상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였고(③), 임진호, 윤정은, 최나운은 모두 서은우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토의 결과, 서은우의 의견이 최선의 대안으로 채택되었고 할 수 있다(⑤). 최나운은 이찬영의 의견과 서은우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15 토의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끼어

들지 않아야 한다. 토의자가 잘못된 내용을 말한 경우에는 그의 말을 끊고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권을 얻거나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정유+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62~265쪽

- 1 ③ 2 ④ 3 ⑤ 4 ⑤ 5 ④ 6 ⑤ 7 ③
8 ④

1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할까?’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②, ④, ⑤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말하기이므로, ‘우리 반의 안전 규칙을 어떻게 정할까?’, ‘지저분한 교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까?’, ‘급식에서 남는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적절하다.
- 2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말하기이다. 참여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진 주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없으므로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3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말하기이다. 각자 다른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게 된다.
- 4 토의 주제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인터넷 검색, 전문가와의 면담 등 다양한 자료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 기관에서의 실험은 전문가가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자료 조사 방법이 아니다.
- 5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캠페인은 다른 학생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6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을 벌이는 의견은 점심 먹을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10분 정도만 캠페인 구호를 외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구호가 적힌 전단지를 받침대에 놓아 두자는 해결책이 제시되어 이 의견은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

오답 해설

- ③, ④ 식당에 관한 정보를 식당 입구에 게시하지는 의견은, 배식을 빨리 받으려고 게시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

해 식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미리 게시하지는 청중의 수정·보완 의견이 제시되어 이 의견은 해결책으로 채택되었다.

7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공동에 이익이 되도록 의견을 조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8 토의에서는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서 최선의 의견,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의견, 제시된 의견들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의견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좋은 의견이 둘 이상이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함께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토의자나 청중의 반대가 있었더라도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67쪽

1 ① 2 ⑤

1 갑자기 생긴 일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을 의미하는 ‘대안’이 적절하다.

2 서로 다른 의견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분쟁의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조정’을 사용해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70~271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③ 06 토의 예절에 어긋난 부분은 윤정은의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이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말을 못 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발언이 끝난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07 ③ 08 물병, 시 낭송 동영상, 면담 동영상,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01 (가)~(마)는 토의의 과정이다.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의사소통이다.

오답 해설

- ① 상호 경쟁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대화는 토론이다.
- ②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설명하는 말하기는 강연이나 수업에 해당한다.
- ③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말하기는 면담이나 인터뷰에 해당한다.

02 (다)에서 모두 대표들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라)에서 모두 대표 간의 의견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후 (마)에서 “이제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청중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모두 대표가 발표할 때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를 통해 토의에 사회자, 토의자, 청중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가)를 통해 토의를 진행하기 전에 토의 주제, 토의 절차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라)에 모두 대표 간의 의견 검토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에 ‘토의에서 나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타나 있다.

03 토의의 사회자는 토의를 진행하면서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할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토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모두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으로 서로의 의견을 검토한 뒤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에 답하겠습니다.”에서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나)의 “오늘의 토의 주제는 ‘우리 반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입니다.”에서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마)의 “이제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에서 토의의 순서를 안내하고 토의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④ (나)의 “윤정은, 임진호, 최나운 학생의 순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토의 발표자의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04 윤정은이 제안한 방법은 물병 제작이고, 최나운이 제안한 방법은 면담 동영상 만들기이다. 이 중 물병 제작은 비용이 발생한다.

오답 해설

- ① 윤정은이 제안한 방법인 물병 제작은 오래 쓸 수 있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② 임진호가 제안한 방법인 시 낭송 동영상 만들기는 국어 시간에 했던 시 선물하기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④ 임진호가 제안한 방법인 시 낭송 동영상 만들기과 최나운이 제안한 방법인 면담 동영상 만들기는 모두 친구들의 모습과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통해 친구들과의 추억을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물병 제작, 시 낭송 동영상 만들기, 면담 동영상 만들기는 모두 반 친구들이 함께한 추억을 남기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05 윤정은의 “면담의 경우,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는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ㄴ)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이다.

윤정은의 “시 낭송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는 ㄷ의 ‘시 낭송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가?’(ㄷ)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이다.

06 [서술형] 토의 예절에 어긋난 부분은 ‘상대방의 말을 끊으며’이다. 이러한 태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러한 태도를 개선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어 보도록 한다.

07 토의는 ‘토의 시작 – 모둠 대표의 발표 – 모둠 대표 간의 의견 검토 –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 – 토의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08 [서술형] (다)에서는 물병, 시 낭송 동영상, 면담 동영상 등 세 가지 의견이 나왔다. 사회자는 이 내용을 요약정리해 주고 나서 다음 토의 단계를 진행한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78~281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6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혼자 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07 ② 08 ④ 09 (1) 윤정은은 면담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냐는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
(2) 최나운은 면담 질문 두세 가지를 정해 미리 알려 주고, 그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을 각자 촬영한 뒤 그것을 모아 편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 ①**
11 ⑤ 12 ①

01 (라)에서 대중매체는 ‘주로 일반 국민이 내는 수신료, 개별 회사가 내는 광고비,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방송 시청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나)에서 대중매체는 방송국에서 출연자, 연출가, 기술진 등 여러 전문가가 만든다고 하였다.
- ② (나)에서 ‘누구나, 쉽게, 즉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마)에서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 학생들은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신기술을 알려 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거나 요약해 주는 방송을 자주 본다고 하였다. 또한 음식, 동물, 운동 등 취미와 관련된 방송도 봤다고 하였다.

02 (가)에서 강연자는 학생들에게 최근에 본 개인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묻고,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연자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받은 이유는 강연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ㄷ) 강연 주제에 대한 청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고(ㄴ) 강연 주제에 더욱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ㄹ)이다.

03 (다)에는 대중매체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인과 시청자 간의 소통이 자유롭고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여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소통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라)에는 대중매체는 주로 일반 국민이 내는 수

신료, 개별 회사가 내는 광고비,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방송의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라 개별 방송인에게 광고 수익을 나누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하여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수익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다)와 (라)를 묶는 제목은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소통 방식과 수익 구조 비교’라고 할 수 있다.

04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에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 사연을 보낸 것은 대중매체를 이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③, ⑤ 개인 인터넷 방송의 방송인과 시청자 간의 소통이 자유롭고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④ 개인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에 해당한다.

05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선거와 관련된 뉴스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서술형] (나)에서 학생 시청자 2는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혼자 제작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강연자의 설명을 듣고,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나만의 방송국’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07 (라)에서 최나운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다면 동영상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하여 면담 동영상을 만들자는 의견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사회자가 ‘우리 반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 것인가?’라는 토의 주제를 밝히고 있다.
- ③ (다)에서 임진호는 윤정은이 제안한 물병 제작에 대해 ‘적은 돈이라도 비용이 드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돈을 내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돈을 걷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부담이 더…….’라고 하여 비용과 관련한 검토 의견을 내고 있다.
- ④ (나)에서 임진호는 시 낭송 동영상 만들기, 최나운은 면담 동영상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호와 최나운이 제안한 방법의 공통점은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다.
- ⑤ (라)에서 청중인 이찬영은 시 낭송이나 면담을 담은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각각의 친구들 말고 모두가 함께했던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모둠 대표인 임진호와 최나운이 답변하고 있다.

08 (나)에는 물병 제작, 시 낭송 동영상 만들기, 면담 동영상 만들기라는 모둠 대표들의 의견이 차례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자는 이 세 가지 의견을 요약정리하는 발언을 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⑤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추가 설명은 모두 대표 간의 의견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사회자는 토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쪽 의견을 지지하는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토의 절차에 청중의 질문이나 의견 제시 순서가 있다고 했으므로, 모두 대표들의 발표가 끝난 후 모둠원이나 청중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서술형] (다)에서 윤정은은 “면담의 경우, 친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촬영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라고 하여 면담 촬영 시간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나운은 “면담 질문 두세 가지를 정해 미리 알려주고, 그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들 각자 촬영한 뒤 그것을 모아 편집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 (가)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영향력을 알려주는 강연의 마무리 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나)는 ‘우리 반이 함께한 소중한 추억을 어떤 방법으로 남길까?’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가는 토의 과정의 일부이다.

11 (나)와 같은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가 절차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 토의 참여자를 설득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② (가)와 같은 강연에서는 강연자가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가며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내용에 관한 생각이나 궁금증을 강연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④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토의 같은 말하기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할 때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2 토의 주제는 공동의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리 임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토론의 주제이므로 토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③, ④, ⑤ ‘교실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실천할까?’, ‘우리 학교 텃밭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봉사 활동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는 모두 공동의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주제이므로 토의 주제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282~283쪽

01 ㉠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02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 /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 판단하기 / 매체의 내용에 관해 질문하고 평가하기

03 ㉢ 다운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 아름이는 특정 주제의 방송만 보고 있다. ㉤ 시청 시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되돌아본다. ㉥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보아야 한다. ㉦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찾아보도록 노력한다.

04 (1) 교실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실제 학급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인가? /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인가? / 대부분의 친구에게 적절한 청소 방법인가? / 교실 청소가 잘 되는 청소 방법인가? 등

05 임진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과연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에서 토의 예절에 어긋난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호에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표정과 말투)와 발언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에 임해 보자.”라고 조언할 수 있다.

평가 요소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전달 내용과 영향력 비교하기

01 (가)에서 전달 내용과 관련하여 대중매체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보편적인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하였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 개인의 의견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향력과 관련하여 대중매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아 많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주고, 개인 인터넷 방송은 흥미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가)를 바탕으로 대중매체의 전달 내용(㉢)과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슬기로운 매체 이용 방법 파악하기

02 (나)에서 강연자는 ‘슬기로운 매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 매체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을 판

단해 보아야 하며, 매체를 이용할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면서 매체의 내용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매체 이용 방법 3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매체 이용 방법을 2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매체 이용 방법을 1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3가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2점
'~하기'로 문장을 끝맺지 않은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개인 인터넷 방송 이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이용 방법 파악하기

- 03 • 나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습관적으로 계속 보다가 해야 할 일을 못 한 적도 있으면서 방송 시청 시간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 과하게 빠져 있는 경우로 시청 시간을 확인하여 자신의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 다운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아름이는 연예인 정보를 소개하는 방송만 보고 있다. 이는 특정 주제의 방송만 보는 경우로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 중 4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8점
㉠~㉢ 중 3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 중 2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 중 1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토의에서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하기

- 04 토의 주제로 '교실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했을 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학급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친구에게 적절한 청소 방법인가?',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청소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하여 '교실 청소가 잘 되는 청소 방법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에서 나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3가지 이상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에서 나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2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적절한 토의 주제를 선정하고, 토의에서 나올 의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1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토의 주제만 적절하게 선정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토의 예절 지키기

- 05 토의 중에 다른 토의자로부터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과연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느낌을 받아 감정이 상할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토의 예절에 어긋난 태도와 발언을 맞게 찾고,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와 개선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토의 예절에 어긋난 태도와 발언을 맞게 찾았으나,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와 개선 방법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토의 예절에 어긋난 태도와 발언만 맞게 찾은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